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 1047 1983년 2월 3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Thursday, February 3,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TORONTO, CANADA M5S 1A5
FEB 3 1983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윤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 실종10일만 교포소유 주택 냉장고속서

# 9살·키난양시체 발견

## 경찰, 임대자 백인에 혐의 추적중

### 세든 한국인등 이웃 엉뚱한 피해

지난 1월23일 실종이후 연일 토론토신문에 기사화되고 경찰이 "실종소녀 캐런을 보셨나요"라는 포스터를 내걸고 집중적인 수색작업에 나섰던 샤린·모닝스타·키난양의 시체가 다운타운의 주택 냉장고속에서 발견됐다.

캐런의 시체가 발견된 집은 브룬스윅·애비뉴 48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집은 김상표씨(전 삼성사 주인)소유로 1층의 한국인 가정1세대등 여러가구가 세들어 살고 있는 곳이다.

집주인 김씨는 한달전 해밀톤으로 이사해 나갔으며, 현재 이집은 팔기 위해 복덕방에 나와 있는 집으로 이 집은 죽은 키난양이 마지막 모습을 보였던 공원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곳이다.

스커트와 블라우스를 입은 채 발견된 캐런양의 시체는 "폭행이나 추행한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2일 현재 혐의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냉장고 주인으로 이방에 세든 금발머리의 백인 청년이 수일전부터 자취를 감춘 이 청년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 샤린양의 사인은 시체해부 뒤에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비통에 잠긴 샤린양의 아버지 캐런(35)씨는 실종된 10일간 "제발 목숨만은 살아있어줄 것을 기대했었으나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사태가 왔다"고 말했다.

메트로 경찰 살인전담반은 이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로부터 며칠전부터 옆방의 사람이 자취를 감추었다는 신고를 받고 이 집을 수사하다가 냉장고속에서 시체를 발견했다. 아무도 없는 방에 냉장고는 켜진채로 있었다.

샤린양은 지난 23일 하오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듣고 집을 나간뒤 집부근인 시벨두스·파에서 모습이 보인뒤 실종됐었다.

4피트 9인치에 80파운드 무게의 샤린양의 시체가 얼마나 오랫동안 냉장고안에 있었는지 언제 죽었는지는 즉각 밝혀지지 않았다.

명문 제즈·케첨·퍼블릭·스쿨의 4학년 학생인 샤린양은 평소에 연주와 글짓기에 소질을 가진 깜찍한 소녀였다고 이웃사람들이 전했다.

샤린양이 실종된 뒤 메트로·토론토경찰은 듀폰·스트릿과 배서스트 스트릿의 그녀의 집주변을 샅샅이 뒤졌으며, 그녀의 미소짓는 모습을 담은 포스터를 지하철, 전차, 버스와 시내 곳곳에 붙여 놓았었고, 헬리콥터, 경찰견까지 동원 대규모 수색작업에 나섰었다.

캐런씨 부부는 샤린양이외에 서머·스카이(4), 셀레스트(6)등 3자녀를 두고 있다.

한편 2일 본지취재진이 샤린양의 시체가 발견된 집에 들렀을때는 이미 CBC, 토론토·선, CFTO-TV등 각 보도기관의 차량과 취재진이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무릅쓰고 사건을 커버하기 위해 집주위에 대기하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메트로 경찰의 제지로 들어갈 수는 없었으며, 문밖에 서서 세들어 사는 30대로 보이는 한국남자와 몇마디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모든 것은 이미 경찰에 알렸으므로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면서 "나는 3일전 이사를 왔으며 냉장고가 발견된, 방에 세든 사람이나 샤린양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진이 집으로 접근할때 문밖에서 문안의 세든사람과 대화를 나눌때의 모습을 열심히 촬영하던 CBC등 취재진들은 본지 취재진들을 집주인으로 착각, 무비·카메라로 촬영을 한뒤 마이크를 들이대고 인터뷰를 하려 했으나 보도진이라고 말하자 실망의 기색을 보였다.

메트로 경찰은 멀리 도주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범인 추적에 지장이 있을 것을 염려 수사진전과정을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다.

◆키난양의 사진이 실린 포스터 앞에서 시체를 찾아냈다고 발표한 메트로경찰의 타이럴경위

◆9살 키난양의 시체가 실종 10일만에 브룬스윅·에비뉴의 주택내 냉장고 속에서 발견되었다. 좌측에 보이는 이 주택은 교민소유주택이며, 주인은 딴곳으로 이사해 나가고 여러가구가 세들어 살고 있다. CBC, 토론토·선, CFTO-TV등 각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스키강습회에서 박경택 스키협회장(왼쪽)이 처음 스키를 타는 회원들에게 스키법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휘, Mrs. 이휘, 장경희, 양은택, Mrs. 양은택씨.

〈관련기사 2면〉

## 『대한해협 봉쇄』

### 일본정계 발언, 한국내 관심불러

(서울=외신)나까소네 일본수상의 「4개 해협 봉쇄 발언」, 일본방위청 나까메 방위국장의 대한해협 봉쇄 발언은 한국내에서 거센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동아일보〉는 1월25일자 1면톱 기사에서 "유사시의 대한해협 봉쇄는 한일간 사전협의하에 실시돼야 한다"고 보도한데 이어, 26일 한국정부가 "사태의 진전을 예의 주시한다"고 발표, 26일자 〈한국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도 보도기사, 사설, 칼럼등으로 이 문제를 취급,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한국정부는 26일 "일본정부 관계자의 대한해협 봉쇄발언은 일본의 적극적 대미협력 자세의 표현이며, 개헌론파도 관련된 국내정치체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냉정히 평가, '한국영해가 아닌 대한해협의 공해상에서의 일본해상방위대의 훈련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나, 사전에 우리나라와 협의해줄 것이 바람직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국측의 가장 큰 불만은 이같은 발언이 한국정부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의논도 없이 표명된 점이다.

또 하나 한일간의 큰 「갭」은 「해협봉쇄론」의 가상적이 일본으로서는 소련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한국측은 「북한」만을 적으로 보고 있다.

〈조선일보〉는 "일본의 대한해협 봉쇄가 소련을 가상적으로 삼고 구상된 것이므로 우리로서는 깊이 생각할 문제이다. 모든 공산국파의 관계를 개선하여 최소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것이 한국의 외교정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여 한국이 소련을 가상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반대의사를 시사했다.

## CP항공 여름철 시트 판매

### 5월부터 44%~59% 할인

(벵쿠버)CP항공은 6개 캐나다 주요노선에 대한 장기 좌석 할인세일을 이번 여름기간동안 실시할 것이라고 1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44%에서 59%까지 할인될 이 세일은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간 실시되며 해당노선은 (1)토론토-뱅쿠버 (2)토론토-캘가리 (3)토론토-에드몬톤 (4)토론토-위니펙 (5)뱅쿠버-몬트리얼 (6)캘가리-몬트리얼이다.

할인율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의 표가 주말표보다 20달러정도 높으며 어린이의 특별할인도 있을 것이라고 마켓팅담당 부사장인 딕·후이스만이 말했다.

그는 또한 5월1일부터 6월16일까지와 9월9일부터 10월31일까지의 비성수기간이 성수기인 6월17일부터 9월8일까지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계획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관품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AST
TORONTO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83년 최신스타일 쇼및 특별대할인판매

블루어 한인상가에
밍크공장 직매점 개설

밍크털 오바나 그외 각종 모피 가공품을 사실때는 712 BLOOR ST. W.에 카나다 밍크센타가 직영하는 밍크털공장직매점을 찾아주십시요.
본사는 10여년간 한국인이 직영하는 모피및 모피가공품 전문도매상으로 그 품질이나 공정에 책임지고 보증하며 공장값으로 손님을 모시고 있읍니다.
한점 한점 세밀한 감정과 검정을 거쳐나온 작품같은 가공품은 타사의 그것에 비교되지않은 탁월함을 자랑하며 봉사하고 있읍니다.
마춤도 같은 값이오니 본인의 체형에 맞는 아늑하고 포근한 자기 것을 찾으십시오.

카나다밍크센타
712 BLOOR ST. W.
☎: 535-7878, 532-8662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 한인스키어 스키장 누벼

## 제2회 스키강습 성료

◆몽·트랑브랑 스키장에 온 한인 스키어들.

32명의 한인스키어들이 캘가리(알버타주)동쪽 캐나다서는 가장 좋다는 몽트랑브랑 스키장을 마구 누볐다.

한인스키협회와 본 토론토한국일보가 공동주최한 제2회 스키강습회 참가자들은 지난 29일 새벽2시께 관광버스편으로 빌라·벨레브 모텔에 도착, 이날 아침부터 스키를 즐겼다.

처음 스키를 타는 3가정과 어린이들은 스키협회의 지도로 곧 익숙해져 다음날인 30일(일)에는 리프트(케이블카)를 타고 퀘벡주 스키장으로는 가장 높다는 트랑브랑 산정에 올라 약4킬로의 코스를 여러번 질주했다.

몬트리얼 북쪽 130Km(80마일), 자동차로 1시간20분 거리에 있는 이 스키장은 약30개의 코스를 가졌으며, 리프트등 시설이 좋은 것으로 유명, 많은 국제스키대회가 열리며, 또 우수한 스키선수들을 배출한 곳이다.

최장코스는 5,2Km(3,2마일)나 되며 코스중 약 20%는 초보자를 위한 코스여서 강습회원들에게는 알맞았다. 회원들중 어린이들은 첫날부터 T-바를 타고 코스중턱으로 올라가 쏜살같이 달려내려 왔다. 어른들과는 달리 어린이들은 별로 넘어지지도 않았다.

양은택씨는 왕년의 국가대표하키선수였던 저력을 발휘, 첫날부터 산정에서 혼자 내려와 눈을 의심케했고 장경희양도 조기잉과 수영으로 단련한 바탕을 기초로 신나게 눈을 탔다.

피터·유, 모니카·강, 줄리·리, 스지·구양등 틴·에이저들은 어려운 코스를 골라가며 점프, 회전등을 즐기느라고 얼굴 보기가 힘들었다.

이번 강습회중 김토마스군(12)은 리프트를 타고 가다 중간지점 스테이션에서 갑자기 뛰어내리다가 어깨를 약간 다쳤다.

강습회원들은 트랑브랑 스키장이 토론토서 7~8시간의 거리지만 코스와 시설이 좋고 눈의 질도 좋아 모두가 기쁜 마음이었다.

많은 회원들은 2박3일의 일정이 짧았다고 아쉬워하면서 다시한번 올 뜻을 비쳤다.

행사를 주관한 스키협회(회장 박경택)는 "더 많은 교민들이 스키를 배워 긴 캐나다 겨울을 즐겁게 지내도록 돕고 싶다"고 거듭 밝히면서 스키에 관한 문제는 일차 연락해 주기를 요망했다.

본사는 작년에 브랜톤·스포츠사(사장 이건영)와 함께 제1회 다운힐 스키강습회를 퀘벡주 세넝 스키장에서 가졌다.

---

# 김대중씨가 말하는 납치진상 ⑥

## 협력요청을 끝내 거부 광주 피해 알고 실신

### 군부와 나

정보부(KCIA) 지하실에 있을때 보안사령부 간부(현재 전대통령의 고위 측근자)가 나를 찾아왔다. 체포이래 약 두달간의 심문이 끝난 80년7월10일경의 일이다. 그는 나에게 군부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군간부 3번 방문

그는 (1)한국내의 지역적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적 단결을 꾀하는데 나의 협력이 필요하고,

(2)일부학생과 젊은이들이 좌경화되고 있는데 그들을 설득할 유일한 인물이 나이다 라는 두가지 이유를 들어, "그러니까 당신과 손잡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협력을 거부하면 생명은 보장못한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는 그때 신문을 차입해 주었는데 나는 그 신문을 통해 광주에서 민중봉기사건이 일어났으며, 정부측 발표만으로도 180여명이 죽은 것을 처음으로 알았다.

너무나 큰 충격에 나는 실신, 링겔 주사등을 맞았다.

그후에도 이 간부는 두번 찾아와서 같은 요구를 되풀이하였다. 그러나 나는 "광주사건으로 숨진 넋들을 생각하면, 비록 천번을 죽는대도 타협할 수는 없다"고 결심, 그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 나는 이미 죽음을 각오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나는 3번이나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감형으로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군에 대한 내 생각은 기본적으로 지금도 변함이 없다.

"군"이라고 한마디로 말하지만 1)국방에 전념하는 군인. 2)「정치게임」에 열을 올리는 군인등 여러 종류가 있다. 그중 「정치게임」군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경비사령부, 보안사령부, 국가안전기획부(전 CIA)등 3개조직의 극히 소수군인들 뿐이다.

◆김대중씨등의 체포, 계엄령의 전국확대에 따라 80년5월18일 서울시청 앞에 출동한 군장갑차.

### 소수군인만 정치

북한과 맞서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일선의 군인들은 중앙에서 무슨 일이 있다하더라도 일선을 버리고 서울로 돌아올 수는 없다. 그러기에 수도중심 소수의 군인들이 정치에 관여하기가 쉽다.

따라서 한국에서 「군부」라고 할 때 그것은 정치에 관여하는 서울 근처의 군부를 지칭한다고 보아야겠다.

한국의 군부가 나를 얼마나 지지하고 있는가? 또는 반대하고 있는가에 대해 지금 언급하고 싶지 않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군부는 국방에 전념해야지 정치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녕 바른 자세를 가진 정치가라면 군인에게 빌붙어서 권력을 잡으려해서는 안된다. 군인에 매달려 정권을 잡으면 결국 언젠가는 그들에게 정권을 빼앗기거나, 그들의 마음대로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계 속)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

金聖鍾작

# 이상한 女人 ⑦

## 형사들은 文子를 여관방으로 연행…

그녀는 가정부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일렀다. 그러자 마현사가 손을 흔들었다.

『아닙니다. 지금 곧 가야 합니다. 부인께서도 우리와 함께 가주셔야겠읍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져 있었다. 그대신 냉엄한 형사의 모습을 보이고있었다. 문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 무슨 일로 그러시나요? 제가 가야할 이유라도 있나요?』

『물론 이유가 있지요. 자, 일어서시죠.』

그들이 일어설 채비를 했다.

그녀는 입이 얼어붙어 잘 떨어지지가 않았다.

『무, 무슨 일로 그러는지…이유를 알기 전에는 못가겠어요.』

그녀는 몸을 도사리며 남자들을 노려보았다.

『잘 알고 있으면서 뭘그래요.』

나이 든 형사가 그녀를 쏘아보면서 거칠게 쏘아붙였다.

그녀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무슨 말씀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시침을 떼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다 알고 온 거니까. 자, 갑시다. 안 가겠다면 강제로 연행할수 밖에 없어요.』

형사가 일어서면서 그녀의 팔을 잡아끌었다.

그녀는 형사의 손을 뿌리쳤다.

『이거 놓으세요!』

『시끄럽게 굴지말고 조용히 갑시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녀는 백을 집어들며 물었다.

『우리도 그건 모릅니다. 될수록 빨리 끝내겠읍니다.』

마인이 정중히 말했다.

눈앞이 캄캄해진 그녀는 부축을 받고서야 아파트를 나설 수가 있었다.

형사들은 그녀를 수사본부로 데려가지 않고 여관방으로 데리고 갔다.

한편 박두봉은 회사에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집에도 갈 수가 없었다.

그는 회사와 집에 전화를 걸어 낯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았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대답이었다. 그러나 그의 생각에는 형사들이 그를 체포하기위해 꼭 잠복해있을 것만 같았다.

전전긍긍하고 있다가 그는 누이집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가정부가 전화를 받았다.

어떤 남자들이 누이를 데리고 나갔다는 대답이었다.

그는 두시간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다. 누이는 그때까지 돌아와 있지 않았다. 연락도 없다는 것이었다. 회사로 전화를 걸어보았다.

『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손님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손님들이지?』

『남자분 둘입니다.』

『알았어. 곧 들어가지.』

전화를 끊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 형사들이 와 있어요. 당신…무슨 일이에요?』

아내는 잔뜩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朴男 그림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美女와 사나이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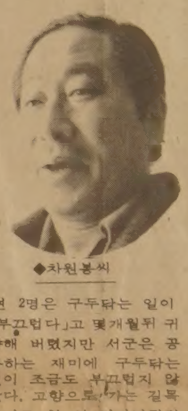
---

# 美談 경희대동문 성금 구두닦이 도와

토론토에 있는 친목단체의 상당수가 각가지 방법으로 고국에 있는 불우동포에게 온정의 손길을 뻗이고 있다.

그중의 하나가 30명의 동문으로 이루어진 경희대학교 토론토동창회(회장 차원봉).

차씨는 1일하오 토론토한국일보를 방문, 125달러를 전하면서 이돈을 최근 본 한국일보 본국판에 기사화된 구두닦이로 금년도 성균관대학교에 합격한 서정암군(20)에게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차원봉씨

이 돈은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날에서 6년째 구두를 닦고 있는 서군이 성균관대 야간부 무역학과에 합격했다는 본지 1월25일자 7면의 「슈사인 입지전」제하의 기사를 읽고 감명을 받은 동문들이 모은 성금이다.

택시사업을 한다고 하는 차씨는 이돈이 지난 28일 동문회 친목계원 1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즉석 모아졌다면서 「적은 금액이지만 서군의 학업에 다소라도 보탬이 되었으면」하는 마음이라고 수줍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기사에 따르면 서군은 고향인 전남 강진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가난한 집안형편으로 진학이 어렵게 되자 15세때 무작정 상경하게 되었고,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날 앞에 구두닦이로 자리를 잡은뒤 구두닦는 틈틈이 공부를 했다. 서군은 중학교, 고등학교과정을 이 구두닦이 박스안에서 독학으로 공부, 검정고시에 합격했었다.

"함께 상경했던 고향소년 2명은 구두닦는 일이 「부끄럽다」고 몇개월뒤 귀향해 버렸지만 서군은 공부하는 재미에 구두닦는 일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다. 고향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한 이 터미날광장에 앉아 있지만 서군은 단 한번도 고향가는 버스를 타보지 못했다"고 이 기사는 전했다.

## 심재권 석방

### 「김대중사건」관련 학생

(서울 2일=연합)서울 지방검찰은 2일 「김대중사건」에 관련되어 수감되었던 서울대학 4학년 심재권(37세)씨를 수감 28일만에 석방하였다.

심씨는 1980년 5월 광주사태 연관자로 지명수배되어 왔었는데 작년 연말경 자수하기 전까지 숨어지냈었다.

그는 80년초 학원동요 선동과 광주사태직전의 학생활동 모임에 참가한 혐의를 받았었다.

검찰이 기소 가부에 대한 결정없이 심씨를 석방한 일은 이례적인 일이다.

---

## 교민동정

◆김삼우(선련사 주지스님)=17년만에 고국을 방문해인사, 범어사, 통도사등 오래된 사찰을 순례하고 한국문화·예술계의 인사들을 만나는등 바쁜 일정을 마치고 지난 23일 토론토로 돌아왔다.

그는 오랜만에 본 고국은 "물질적으로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그로 인한 혼란의 댓가를 치르고 있는 듯했다"고 2일 전했다.

◆공영길(가부기식당 주방장)=지난 연말 토론토에 이민와, 444 영스트릿의 일본식당 가부기(KABUKI STEAKHOUSE) 주방장이 됐다. 일본인 종업원들을 거느리고 일하는 공씨는 이민오기 전에는 프라자호텔등 큰 레스토랑에서 10년간 일했는데 특히 "스시·바"의 솜씨는 일품이라고.

◆김성곤(전 실협회장)=가장 가까운 친우 강황규씨에게 참신앙을 안겨주고, 간암으로 숨질 때까지 극진히 위해 주었으며, 사망후에도 우정을 100% 발휘하여 주위를 감동케 했다.

◆이후찬(9세) 이진경(7세) 남매=토얀·콘서버토리(음악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악이론시험에서 남매가 나란히 최연소 합격하여 화제.

오빠 후찬군은 Grade 1 과정에서, 동생 진경양은 Preliminary 과정에서 각각 1st Class Honour로 패스하였다.

음악실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이 테스트는 장·단조 음계, 조표, 다양한 음정변형, 기본화음을 이용한 전위, 음악용어테스트등의 어려운 시험이다.

이론시험에 합격치 못하면 Grade 5 실기과정부터는 실기자격증을 얻지 못한다.

캐나다인의 경우 대개 12세부터 이 시험에 응시한다.

퀸과 팬스다운에서 가게를 경영하는 이달현씨와 안정혜(피아니스트)씨의 자녀인 이들은 모두 팍데일(Parkdale)학교에 재학중.

---

# 「시험관아기」 신청 쇄도

## 임신시도 1회비용 $750~850

「토론토·이스트·제너럴병원」에 「시험관아기」병원이 2월1일 개원한다고 발표된후 자신의 아기를 갖기를 원하고 있으나 가질수 없는 부부 100쌍이상이 신청을 했다.

이 병원에서 근무할 4명의 부인과 의사중의 한명인 무레이·크로치박사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중 몇명이 시험관 수정방식의 후보자로서 적합한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시험관수정이란 여자의 수정가능 난자와 남자의 정충을 「실험접시」에 담아 수정시킨후, 수정된 난자를 여자의 자궁에 심는 방식이다.

크로치박사는 「시험관아기」병원은 우선 당분간은 1주에 1쌍만을 받을 계획이며, 임신시도 1회에 750~850달러의 비용이 들것이라고 밝혔다.

시험관아기를 갖기 위해서는 아내는 년령이 40이하로 자궁이 건강해야함과 동시 월경기간이 대체적으로 일정해야 하며, 한편 남편은 정상적인 량의 정자를 생산할수 있어야 한다.

크로치박사는 "이 병원은 재래식 방법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불임문제를 안고 있는 결혼한 부부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5전중에 1건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임검사경비의 일부는 온타리오 건강보험계획(OHIP)으로 카버될수도 있지만 정부의 예산제한 때문에 대부분의 경비는 개인이 부담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로치박사는 한개 혹은 여러개의 난자를 주사기로 꺼내서 배양액체가 들어있는 시험관으로 집어 넣어 수정이 되면 수정난이 몇개가 되던 모두 자궁에 이식하게 되며, 그러나 이식된 수정난이 태아가 되는 확율이 낮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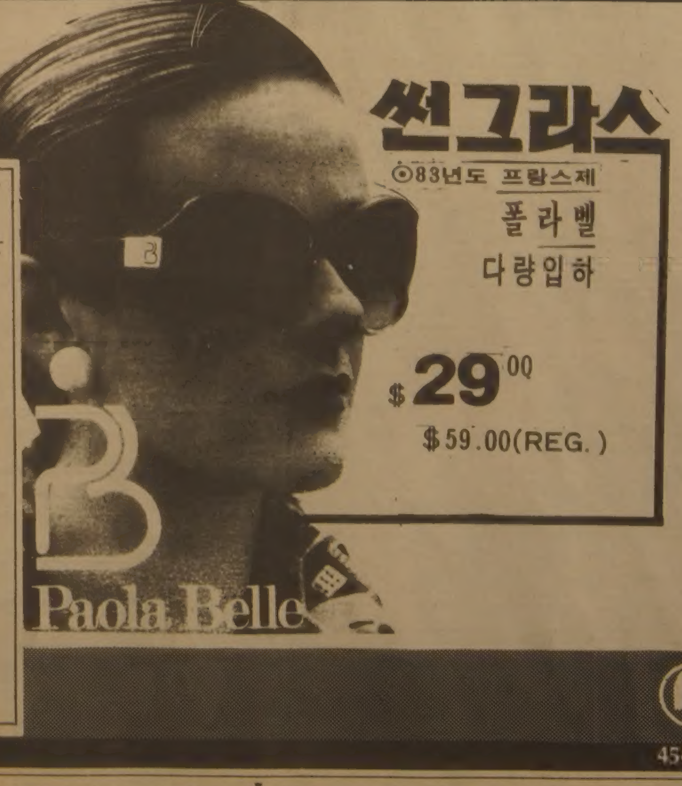
성공확율을 높이기 위해 대개의 경우 수정난을 1개 이상 이식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간혹 오크빌의 어느부부의 경우와 같이 쌍둥이 시험관아기를 탄생시킬수도 있다.

세계각국의 시험관아기 병원의 통계에 의하면 임신하기 위해 여러차례의 시도를 하는 부부가 허다하며 5번 거듭 실패하면 임신확율이 낮다고 밝혔다.

부부가 첫번째 시험관아기를 가진뒤 2번째, 3번째 시험관아기도 가질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크로치박사는 7월이면 5살이 되는 세계최초의 시험관아기인 영국의 루이스·브라운양의 부모는 현재 2번째의 시험관아기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미도파에서는 다가오는 구정을 기하여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 친지들께 선물을 보내시려는 교민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코져 각종 선물용품과 금은보석, 고급시계, 양품, 화장품, 각종 비타민, 한약, 모피와 의류품을 다량으로 준비하였사오니 이 기회에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미도파백화점
대표 장추신 배




썬그라스
⊙83년도 프랑스제
폴라벨
다량입하
$29.00
$59.00(REG.)

테스트쵸이스커피
8 oz
특별세일가격
$5.49
$7.99(REG.)

40-50% OFF

미도파
454 BLOOR ST.W. TORONTO (B) 536-1692 (R) 245-3536

# 광고의 기술과 그 효과

## 광고매체의 대종은 신문·TV

### 유명상품도 반복광고로 계속 인식을 심어줘야

신문과 TV등 대중 홍보 매체에 광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광고는 '영업체 또는 상품의 존재, 효능을 널리 알리는 것"으로 현대 자유시장 경제하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광고효과는 신문등 광고매체의 영향력, 즉 독자가 많을 뿐더러 소득과 구매력이 많은 독자를 가진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상식화돼있다.

그러나 광고의 빈도(Frequency)와 효과에 대해 이제까지 광범위하게 구체적으로 분석 파악된 바 없었다.

이 점을 착안해서 Time Inc.와 Seagram 회사가 1년간에 걸쳐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윤곽이 드러났다.

이 조사는 「획기적인 실제적 조사」라고 광고조사재단(ARF)의 마이크 내플스 회장은 말하고 있다.

조사는 편의상 2개지역, 즉 밀워키와 미조리주를 대상으로 Time Inc.가 발행하는 주간지 Sports Illustrated와 Time지에 Seagram의 위스키등 8개 종류(Brands)의 리커를 광고로 게재, 48주간동안 2만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조사기간동안, 그리고 조사지역에서 Seagram은 이 2개주간지 이외에 Brand광고를 내지 않았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완전한 균형적 방법」에 따라 일부 사람들은 1개월을 단위로 Brand광고가 전혀 게재되지 않은 주간지를 받아 보았으며, 일부 사람들은 광고가 한번 게재된 주간지를, 일부 사람들을 광고가 두번 게재된 것을, 그리고 기타 사람들은 네번 광고가 실린 주간지를 받아보게 했다. 광고는 3개월마다 변경했다.

조사기간동안 여론조사 기관인 Lieberman Ass.가 매주 사람들의 구매경향과 태도를 직접 문의해서 조사했다.

2만명의 조사대상중 높은 비율인 75%의 사람들이 조사에 응했으며, 이 조사에 응한 사람중 80%가 술을 마시는 사람으로 밝혀졌다.

선전의 대상이 된 여덟가지 술 종류를 반으로 나누어 네가지는 「잘 알려진」 Brands, 나머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Brands로 선택하여 광고를 게재했다.

조사결과 「잘 알려진」 Brands는 첫번째 광고로 사람들의 인식도(awareness)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문가들도 놀랄 정도로 이제까지는 세번이상 광고를 게재해야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이번 조사에 관여한 Sports Illustrated지 광고국장 로버트 슈리버는 말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Brands는 처음 몇번의 광고로 그 인식도가 크게 늘지 않았으나 계속적인 광고로 「잘 알려진」 Brands보다 높은 인식도의 증가를 보였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두가지 Brands 모두가 계속적인 광고로 인식도가 증가한 사실인데 조사가 끝난 48주간 이후에도 그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슈리버국장은 지적하고 있다.

인식도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이 조사는 광고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어떤 Brands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습관의 변화에 큰 관심을 두었다.

조사결과 처음 4주동안 한번 내지 두번 광고로 선전된 Brands를 본 사람중 동 Brands를 사용한 사람이 35%나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에 네번 광고로 선전된 Brands를 사용한 사람은 7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습관도 크게 달라져서 4주동안 계속 광고에 접한 사람은 선전된 Brand를 전에비해 1배70%나 더 많이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목할 것은 구매습관이 달라졌다고해서 어떤 이름난 Brand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관적인 태도」(Attitude)에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조사분석결과 사람들이 선전의 영향으로 무의식적으로 구매습관에 변화를 가져왔더라도 어떤 유명상품에 대한 잠재적인 태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슈리버국장은 설명한다.

이같은 사실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믿어온 개념, 즉 먼저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키면 구매습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종래의 생각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그는 강조한다.

이제까지 전문가들은 구매습관보다도 소비자의 태도를 조사분석하는 것이 손쉬운 일이므로 소비자의 태도를 강조하여 왔다고 그는 지적한다.

이번과 같은 구매습관의 조사는 엄청난 비용이 든 것이라고 지적하고, 소비자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첫째 조건으로 구매습관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슈리버는 강조하고 있다.

이번 조사로 이제까지 중요시한 사람들의 기억(Recall) 효과는 근거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응답한 사람중 4주간 아무런 Brand의 광고를 게재하지 않았는데도 특정 Brand의 광고를 보았다고 말한 사람이 14%나 됐다고 슈리버는 지적한다.

반대로 같은 기간에 특정 Brand의 광고를 게재했는데도 그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80%나 됐다.

따라서 사람의 기억은 광고효과의 측정에는 믿을 것이 되지 못하고, 조사분석 통계표의 곡선이 보여주듯이 사람들이 광고를 본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도 그 광고의 영향으로 Brands의 인식도와 구매태도는 급상승하고 있다고 슈리버는 설명한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집중적인 광고는 상품의 판매와 소비를 그만큼 증가시킨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면 광고를 어느정도 자주 게재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으나 이것은 이번 조사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원칙적으로 아무리 유명상품이라고 할지라도 자주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인식을 넣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상품이라도 선전없이는 판매를 기대할 수 없다고 그는 강조한다.

조사에서 보듯이 사람들의 선입관념은 강한반면 소비자가 어떤 다른 상품을 택하기로 결정하면 그 후 그 구매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그는 지적한다.

선전을 하지 않고 소비자를 빼앗기면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번 조사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의 태도보다도 행위, 즉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쉬운 것이다.

▲사람의 기억력은 광고효과 측정에 믿을 것이 못된다.

▲단 한번의 광고도 그 상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를 크게 증가시킨다.

▲계속적인 광고선전으로 잘 알려진 상품보다도 잘 알려지지 않은 상품의 인식과 인기가 더 급속히 증가한다.

▲광고선전의 효과는 계속 증가하며 줄어들지 않는다.

**좋은 상품도 광고없이 판매 어려워**

**자유시장 경제하에 절대적 역할**

**"요즘엔 너무 바빠졌어요"**

▲아버지가 어드미션·디렉터로 있는 UCLA에서 1년여 공부한뒤, 배우가 되기위해 연예계에 들어섰던 헤더·록클리어(21). 「다이너스티」「윌 가이」「T.J. 후커」등에 출연하느라 바쁜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식자안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 훨씬저렴한 가격
● 빠른 써비스
책종류 환영함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소 론〉

문우일 (매니토바대학교 교수)

◆문우일 박사

뉴우파운드랜드의 아르젠티아에서 배를 내려서 자동차로 세인트·존스를 향해 가노라면 주위의 산들이 모두 검은 돌산들이어서 첫인상이 아주 나쁘다. 마치 동화에 나오는 마귀할멈이 사는 그런 곳만 같고, 또 항상 바람이 세서 뉴우파운드랜드의 동부는 사람 못살 곳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하늘 맑은 가을날 이 검은 돌산에 하이킹을 해보는 사람은 새로 발견하는 아름다움에 놀라고, 또 수없이 열려있는 블루베리가 주렁주렁 달린 작은 나무들에 입과 손이 퍼렇게 멍들도록 따먹을 수 있다.

또 세인트·존스에서 얼마 멀지 않은 벨레뷰 해변가에 가보면, 발목만 적시면 주울 수 있는 무수히 깔린 소라, 성게등, 사람이라고는 몇십리를 가도 몇바에 만날 수 없는 이 해수욕장은 마치 우리가 진짜 낙원이라도 거니는 것같은 기분을 준다.

우리는 거의 무한정한 것같은 해산물들, 초여름이면 떠내려오는 산더미같은 빙산등의 자연의 경이를 제외하더라도,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은 뉴우화운드랜드가 얼마나 축복받은 땅인지 알 수 있게 된다.

또 온타리오에 산다면, 가을이 오면 사과밭에 가서 아이들을 마차에 태우고 실컷 사과를 따고, 또는 터버머리에서 나이아가라까지 뻗쳐있는 하이킹 트레일을 따라 몇시간, 아니면 며칠씩도 자연에 묻혀버릴 수가 있다.

좀더 여유가 있어 알공퀸 공원에 카누를 띄우고, 유명한 캐나다의 화가들(그룹·오브 세븐)의 하나인 톰·톰슨이 초현실적인 그림을 그렸고, 결국은 빠져 죽기까지 했다는 톰슨 호수로 패들질을 해 가노라면 호화찬란한 단풍, 마치 우주의 창문을 내다보는 것 같은 깊어 보이는 하늘은 잠시나마 무한한 해방된 행복감에 젖게 한다.

더우기 알공퀸 공원이 자리잡은 지각의 암반은 이 지구에서도 가장 오래된 원래의 돌들로 돼있어서 눈만 감으면 지구의 역사도 몇억년을 돌이킬 수 있다.

하느님이 이 지구를 처음 만드셨을 때 아시아, 유럽, 남북미대륙,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들이 모두 붙은 한 땅덩어리였었다. 이 대륙들이 고생대 이후부터 쪼개져 흩어져 벌어지고, 지구표면에 많은 변화를 일으켜 왔다.

그러나 이 알공퀸 공원이 자리잡은 캐네디언 쉴드지각만은 계속 변화 없이 풍화만 받아온 끈질긴, 지구의 역사를 가장 오래 목격해온 산 증거로 우리의 상상력을 무한히 넓힐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북미의 대평원은 한없이 뻗쳐있는 밀밭, 털·그라스(키큰 풀), 이제는 그림자도 볼 수 없는 바이슨들로 유명하다. 지금도 매니토바, 사스카치완으로 발길을 돌리면 곡물의 황금물결들, 끝없이 깔린 해바라기 꽃밭들, 빨간 하늘의 황혼, 끝없을 것같은 지평선들로 특징지어지고, 이런 인상은 보는 사람에게 풍요한 만족감을 준다.

한편 발을 옮겨 프레리의 늪지로 시선을 돌리면 자연의 약동하는 몸부림을 경험한다. 매니토바호수, 위니펙호수 주변 늪지도에서는 유명한 캐나다 오리등 수백종류의 새들이 알을 까고, 끄마들을 기른다.

또 봄·가을 남쪽으로, 또는 북쪽으로 이주하는 새들의 쉬는 곳이다. 카누를 물에 띄우고, 키큰 풀들 사이를 헤쳐 미끄러져 다니면 초여름에 알에서 까난, 아직도 엄마의 흉내를 내는 오리들, 검붉은색의 털색이 아직도 하얘지지 않은 초년생 갈매기들등 이름도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새들이 하늘이 검도록 무용을 하고, 첨벙거리고, 노래들을 한다.

여기에 초가을 안개가 낀다든가, 프레리의 황혼이 배경에 들면 과연 이것이 낙원이 아니고 무엇인가!

프레리의 하이웨이를 따라 서쪽으로 가면 계속 고도가 높아지다가 결국은 유명한 록키산맥 밑에 이르고, 이 산맥을 넘고, 카스케이드산맥을 넘으면 소위 "연꽃 피는 땅"에 이른다.

물론 록키산맥을 넘기전 쟈스퍼에서 케이블카를 타거나 콜럼비아 빙하원에 오르면 우리가 국민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배워온 록키산맥의 경이를 맛볼 수 있다.

또 록키산맥에서 제일 높다는 롭슨산을 뒤로 배경하여 사진을 찍거나, 빙하들이 가져다준 진흙 때문에 호수의 물색이 에메랄드 초록색인 루이스 호수에 카누만 띄워도 장엄한 자연의 신비에 탄성이 터져 나온다.

그러나 록키산맥이나 카스케이드 산중의 가을하면 하이킹과 등산이다. 물론 이곳의 높은 산들은 대부분 정상이 빙하로 덮여 있어서 동부북미 산들에서와는 달리, 아이스·액쓰, 클램폰, 로프등을 갖춘 하이킹이나 등산을 준비해야 한다. 알파인·메드우에 오르면 벌써 우리가 영화에서 본, 그러나 유럽의 알프스와는 달리, 인간의 발자국들이 적은 때문인지 새로운 경지에 이른다. 나무들이 잘아지고, 고산의 풀들, 이름모를 꽃들이 수정같은 개울물과 함께 마중해 준다.

알파인·메드우에 오르면 등산가들이 왜 꾸준히 산에 오르는가 하는 한면을 볼 수 있을 것같다.

알파인·메드우나, 빙하주변에 텐트를 치고, 이른 새벽 달빛 아래서 정상을 향해 오르기 시작하면 이 경험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세속적인 것에서 무척 먼, 그런 것이다.

더우기 정상에서 느끼는 경외심은 알파인·메도우에서 느끼는 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동적인 성취감 같은 것을 준다. 록키산맥 산들과는 달리, 카스케이드 산맥 산들은 대다수가 생화산이어서 뱅쿠버 주변의 가리발디, 베이커, 데니에등처럼 정상에서 화구를 내려다보면 연기가 무럭무럭 나고, 유황냄새(달걀 썩은 샘새같은)가 바람을 타고 풍겨옴을 느낄 수 있다. 여기서 느끼는 것은 동식물들의 약동과는 달리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맥박을 느끼고, 목격하고 줄기차게 기어 올라왔다는데서 느끼는 만족된 행복감에 푹 젖어들게 된다.

또 사람들이 비교적 자주 오르는 정상에는 어떤 허영심 있는 등산가들이 올려놓은 놋함이 있고, 그 안에는 명록과 연필이 있어서 수년전부터 그 정상에 오른 이들의 이름이 적혀있다. 그런데서는 마치 킬리만자로에 올라 헤밍웨이의 발자취를 볼 수 있게한 것처럼 어린이 같은 흥분을 일으켜 주기도 한다.

성인 토마스·모어가 1516년에 〈유토피아(이상향)〉를 썼을 때 이미 이태리의 상인 아메리고·베스푸치(1451~1512A.D.)가 발견한 땅, 즉 아메리카를 은연중에 이상향으로 책을 전개해 나갔다.

그 이후에 많은 민족들이 이 아메리카에 꿈을 가지고 이주해 왔다. 물론 성인 토마스·모어가 쓴 〈이상향〉은 사회문제, 정치문제에 중점을 두고 이상향을 추구했다.

아메리고·베스푸치가 이 땅을 「새세계」라고 발견한지 거의 오백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마귀할멈이 나올 것같은 돌산 뉴우파운드랜드나, 퀘벡의 가스페지역 언덕들, 온타리오 쉴드의 공원들, 프레리의 대평원과 낙원같은 늪지들, "연꽃 피는 땅"이라는 곳들에 무수히 솟아있는 한없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산들이 문밖에 기다리고 있어, 성인 토마스·모어가 이 땅을 볼 수 있었다면 모어의 유토피아가 좀 다르게 써졌을지도 모른다고 여러가지 자연가적인 상상도 하게 한다.

춥다는 매니토바의 겨울중에도 그렇지만, 봄, 여름 특히 가을이 오면, 틈만 나면 문밖으로 뛰어나가 이 억센 자본주의사회에서 받는, 더우기 하느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살면서도, 쌓여지는 몸속의 독소를 녹여버리고, 눈시울이 뜨겁도록 이 이상향의 자연에 묻혀버리고 싶어진다.

# 칼로리 조절·「디지탈저울」登場

### 모든음식의 단백질·지방질 함유량 알려줘

뚱보들의 다이어트를 도와줄 컴퓨터가 등장했다.

컴퓨컬(Compucal)이라는 이름의 이소형컴퓨터는 6백가지이상의 식품종류에 칼로리가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컴퓨터화된 디지탈저울이다.

이소형컴퓨터가 체중을 쉽게 줄일수 있다고 말하는 제작자 해리·프리드맨은 치즈케익 한조각을 꿀떡 먹기전에 컴퓨터위에 올려놓아보라고 당부한다.

각식품종류별로 코드번호를 갖고있으며, 전전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컴퓨컬」위에 식품을 올려놓으면 중량과칼로리 그리고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염분, 코레스테롤의 함량이 정확하게 계산되어 나온다.

『현재 미국에는 4천만여명의 식이요법자가 있다』고 말하는 프리드맨은 이들 식이요법자들이 「컴퓨컬」에서 재미와 유용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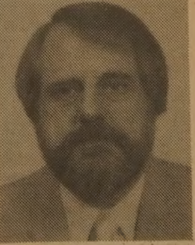
전에 「헐리웃·스퀘어즈」라는 TV퀴즈쇼제작자였던 프리드맨(36)은 처음에 「컴퓨컬」의 판매량을 1만대로 계획했으나 앞으로 4배 또는 5배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여 5백만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벌써부터 돈방석에 앉는 꿈을 꾸고있다. 「컴퓨컬」의 가격은 1대당 1백30달러.

미국내 선풍적 체중감소붐이 매년 1백40억달러의 다이어트비즈니스를 형성하고 있는점을 감안한다면 「컴퓨컬」의 장래도 그리 어둡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세방의
『새봄관광』
안내
플로리다 $399
자마이카 $469
아카폴코 $499
(*1주일 호텔요금·토론토출발 왕복항공요금 포함.)

대표: 유 승 민
서울 세방여행사
미국 나이아가라 대 관광학과
구웰프대 경영학과
토론토한국일보 편집국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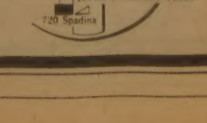


Ed. Zander
메니저 CTC,
AVON TRAVEL
PANAM 항공사
등 26년 경력

관광여행 업무안내
○국내·국외 항공권판매
○여권·비자 수속대행
○각종 관광여행 안내
○호텔및 렌트카 예약
○유학 수속및 상담

"2월12일(토)
오후3시부터
오픈리셉션"

세방관광여행사
SEBANG TRAVEL SERVICE LTD.




720 Spadina Ave. Suite104 TORONTO, ONT. ☎(416)928－3335 (Res. 532－9581)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 실협뉴스
K.B.A.NEWS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G1K8
/533-7923-4
COMPLAINT CENTRE
(HOTLINE)
533-8344

## 단체치아보험 호조
### —신규가입 회원은 60일 이내에—

2월1일부터 발효하는 K.B.A단체치아보험 실시에 대하여 회원들은 물론이고, 회원 아닌 실업인들로부터도 가입 가능성에 대한 문의가 답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아에 대한 치료비가 상당한 금액에 달하고 있음은 이미 상식화 되고 있고, 지난 1년간 회원들이 요청한 사항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였으므로 협회와의 계약요건이 되어있는 500명의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보험계약 체결 발표후 협회에 들어온 문의사항중 Becker나 Mac's를 경영하는 분들이 가입 가능성 여부를 문의해 왔는데, 계약상 K.B.A회원이라야 가입할 수 있고, 협회의 정관에는 정회원의 자격규정에 「한인으로서 캐나다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갖고 사업체를 가진 자나 또 그 경영자」로 되어 있으므로 Becker나 Mac's를 경영하는 분도 가입이 가능하고, 따라서 단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나, 엄연히 Backer후랜차이즈협회가 있으므로 동협회 간부진의 방침에 따라 보험의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보험회사측에 들어온 문의에 의하면, 시내의 약15명의 목사들이 K.B.A.에 가입하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의뢰해 왔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와 앞으로 계속 들어올 단체보험 가입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차선겸회장은 "실업인협회가 문호를 개방하여 모든 업종에 종사하는 한인들의 이익과 복지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이므로 법이 허용하는한, 그리고 기존단체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한 혜택의 범위를 광범하게 확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하였다.

이어 차회장은 "이번 단체치아보험 실시가 앞으로 협회가 강력한 단체의 힘으로 자종이익과 복지를 추구해 나가는 첫 시금석이니만치 가능한한 전회원이 이 일에 참여하여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성과에 따라서 상점보험, 자동차보험등까지도 구룹화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 보겠다"고 언급하였다.

이미 신청 회원업체의 개별방문에 착수한 Crown Life회사의 Graig Heads와 Jim Uptold는 보험내용의 정확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위하여 영어에 능숙한 한국인 직원을 특채, 대동할 계획이라고 하므로 이들의 방문시에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점을 문의하여 보험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착오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2월1일이후에 신규로 가입하는 회원과 그 종업원은 K.B.A.가입일자로부터 60일이내에 단체치과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있고, 60일이 지나면 건강이나 치아의 상태에 따라서 거절당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 분과위원회 구성
## 자문위원 대폭 증원

협회이사회는 아래와 같이 각분과위원회, 자문위원, 「실협의 밤」 준비위원을 구성하였다.

협회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캐나다정부 관계와 대교민관계의 제반업무 수행을 도와줄 자문위원을 대폭 증원하였고, 부이사장으로 지명된 이춘수씨는 차기 이사회의 인준절차가 남아있다.

◉이사장: 서준경
◉부이사장: 이춘수
◉총무이사: 어휘
◉서기이사: 이학현
◉자문의원: 김영대, 김정곤 김태진, 박인순, 박회민, 이근우, 이병권, 이상철, 이형인, 유영린, 장순채, 정철기, 조성춘, 최승낙, 홍중표.
◉감사: 박남회, 서동준, 현영일.
◉선거관리위원회: 김관영, 박광철, 원종필, 장추국, 한천석.

1. 상도의분과위원회: 위원장-백경락, 부위원장-서정길
박남회, 유영갑(R), 이영민, 장추국, 전기석
2. 조직분과위원회: 위원장-송재규
김용규, 송기선, 이휘, 조한권
3. 협동조합분과위원회: 위원장-이춘수, 부위원장-우회두
김관영, 이학현, 한천석, 홍사렴
4. 사업분과위원회: 위원장-원종필
강기원, 조용구, 최복기
5. 홍보분과위원회: 위원장-박광철
나상선, 박찬도, 최호영
6. 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이진효
강준남, 김명정, 이상철
7. 섭외분과위원회: 위원장-유영갑(Y)
박경택, 이동환, 임철원
8. 봉사·친교분과위원회: 위원장-함덕상
김회삼, 송완일, 이형택, 임승철
9. 회칙개정분과위원회: 위원장-장가진
강창흡, 박천봉, 최상수
10. 도너츠업 분과위원회: 위원장-강준남
최장복
11. 세탁업분과위원회: 위원장-이형택
이진효
12. 청과업분과위원회: 위원장: 한천석
이동환
13. 요식업분과위원회: 위원장-나상선
서동준
14. 기술업분과위원회: 위원장-김회삼
송완일
15. 서비스업분과위원회: 위원장-임승철
현영일
16. 자유업분과위원회: 위원장-우회두
최호영

▲10주년기념 「실협의 밤」 준비위원
◉위원장-박경택
◉부위원장-김중수, 정상우
◉강경하, 김남원, 김회삼, 서정길, 송기선, 심태섭, 여문석, 이학현, 이홍규, 이휘, 최상수, 최호영, 함덕상

## 런던지구실협 발족
### 회장 최기운, 이사장 마광훈

1월29일 London의 Howard Johnson Hotel에서 London지역의 실업인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London지구실업인협회 발기모임을 가졌다.

현재 런던지역에는 총 53명의 실업인들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가까운 장래에 정식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한다.

총회에는 온타리오한인실협 간부들도 참석하여 이를 축하하고 격려할 계획이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사6명(마광훈, 김택수, 강상권, 이일환 김경재, 서정선)을 선출하였고, 이사장에 마광훈씨, 그리고 회장에 최기운씨가 수고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온타리오지역에는 해밀턴, 오샤와, 베티에 이어 4개의 실협이 설립되는 것이다.

### K.B.A. 교환센터

◆Frozen Food Cabinet 있음
84"×30"×42" High
Asking $300.-(947-1032 Mr. 서)

◆Hardware Stock이 많이 있음.
원하는 품목만 소량이라도 염가로 제공함.
(669-6438 Mrs. 염)

◆4' Card Rack 2개 구함
(743-2398 Mr. 유)

◆Vegetable 팔 수 있는 Cooler 구함.
(247-6965 Mr. 박)

## Retail Business와 컴퓨터(상)
엄 주 면

컴퓨터시대에 오면서 우리의 재래식 소매업도 멀지 않아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보조를 맞추어야 할 시기가 곧 눈앞에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어 사계의 권위자 엄주면씨에게 이에 대한 고견을 의뢰하였다.

◆엄주면씨

▲필자약력▲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64년)
◉경제기획원 컴퓨터.Programmer(66년)
◉생산성본부 컴퓨터 실장(67년)
◉Univac Canada Toronto System 부장(71~81년)
◉J. A. G. System Consultant Ltd. 사장(현재)

현대과학, 특히 컴퓨터분야의 발전은 괄목하다기보다는 어리둥절할 정도의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있다.

만약 컴퓨터가 관공서나 큰 기업체의 업무처리용으로서 막대한 비용과 특수한 기술, 장구한 시일과 노력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옛날 이야기다.

특히 1975년 Small Business, 또는 Personal Computer의 등장 이후 가격면에서 설치와 사용의 편리함, 그리고 효율면의 다양성은 컴퓨터로 하여금 사회 각 분야에 깊이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란에서는 Retail Business와 컴퓨터, 나아가서는 K.B.A. 협동조합과 연관시켜 중점적으로 개략을 논해 보기로 한다.

### 1. Small Business 컴퓨터란?

북미에서만 약 160개의 컴퓨터회사들이 경쟁품을 내놓고 있으며, 가격은 $500부터 $20,000에 이르기까지 장비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양한 Variety를 갖고 있다. 이는 자동차의 크고 작고에 따라, 또한 Option의 선택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것과 비유되겠다.

(가)Hardware와 Software

컴퓨터는 항상 위의 두가지를 구분하여 논하게 되는데, Hardware란 기계장치 그 자체를 의미하며, Software란 기계장치를 움직이는 Program(Brain)을 의미한다. 가까운 비유는 인간에게 육체와 정신이 있다면 육체(Physical Body)는 Hardware에, 정신(Thinking Power)은 Software에 비유될 수 있다.

결국 인간에게 정신과 육체가 같이 있어야만 되듯이 컴퓨터도 Hardware와 Software가 같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컴퓨터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컴퓨터 Hardware를 제작, 또는 보수하는 기종을 Computer Engineer, 혹은 Computer hardware Engineer(공대 전기과, 기계과 출신)라고 부르며,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Program을 짜고, 또한 컴퓨터를 사회각종분야에 활용케하는 System을 분석, Design하는 사람을 System Analyst, 혹은 Computer Prgrammer라고 부르는 것이다.(대학의 Computer Science 전공, 또는 어떠한 전공도 가능)

(나)Business Computer의 구성

Hardware의 구성면에서는 1 Screen 과 1 Key Board, 16K Memory C. P. U.의 Basic System에서부터 Multi Screen & Key Board, 512K Memory C. P. U.와 막대한 크기의 Mass Storage및 각종 E. C. R.(Eutry Level Electronic Cash Register)과 Printer등의 용도와 목적과 업무의 성격, 양에 따라 다양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Software의 구성면에서는 컴퓨터를 움직이는 기본 System Software(CP/M, MP/M)에서부터 Application System(Payroll, Inventory A/R, A/Pect.)Software가 있다.

만약 기존 Application System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 맞지 않을 때는 Modification을 하여 맞게끔 하거나 또는 새로운 Application System Design및 설치활용이 요구되는 것이다.

실협회원에 대한 Rebate 업무를 예를 들어 가령 500의 회원 Store의 판매실적에 따른 Milk, 빵, Soft Drink, Chips, 잡지, 기타등등 제조업자로부터의 Rebate를 계산하는데 컴퓨터를 활용하는 경우 필요한 컴퓨터 Hardware의 구성은

1 Screen
64K Memory C. P. U.
1 Keyboard
1 Printer
2 Floppy Disk로 될 수 있다.

컴퓨터 Software의 구성은 기본 System Software(C P/M)와 Rebate Application System이 필요한 것이다.

Rebate Application System은 제조회사로부터 Store별, 상품별 Rebate를 실협이 받았을때 실협분을 제외한 금액을 컴퓨터가 계산하여 어떤 제조회사로부터 어떤 상품에 대한 Rebate든지 점포별로 컴퓨터가 수표와 상세 내역을 찍어낼 수 있는 것인데, 기존 Rebate Application System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System Design과 Programming이 요구되는 것이다.

(계 속)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 532-7907
549 BLOOR ST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병헌

## K.B.A. 치아단체 보험내용의 개요

◆연락처

◆Graig Heads
(B)221-2654
(R)826-9138

◆James Upfold
221-2654

◆실업인협회
533-7923

◆치아보험 가입은 의무적이고 기타 보험은 자유임.
◆가족은 K.B.A.회원과 배우자및 직계 부양가족을 말함. 자녀중 21세~25세의 학생도 포함됨.
◆자녀없는 부부는 개인으로 각각 가입 가함.
◆Deductable 없이 전액 카바됨.
◆월보험료 : 가족 $34.50(보험회사 사무비 $2.50 포함)
개인 $12.50(보험회사 사무비 $2.50 포함)
◆1인당 년 최고 $1,500까지 카바됨.
◆1983년 2월1일부터 발효함.
◆보험료지불은 3개월째부터 거래은행에서 자동인출됨.

◆치아치료중 보험에 카바되는 내역 개요.
◉매 6개월의 정기적인 치아진찰
◉스케일링
◉X 레이
◉불소도포
◉금사용을 제외한 모든 충전치료
◉치아에 관계되는 구강수술
◉치주병치료(잇몸 질환)
◉치아간격 유지
◉치아치료에 소요되는 의약품
◉치아의 발치
◉신경치료(근관(根冠) 치료)
◉기존 의치의 치료
◉기존치관과 가공(架工)의치의 치료

### 단체치아보험가입신청서 (협회로 우송)

TO: SUN KYUM CHA, PRESIDENT
FROM: (YOUR NAME) ____________
COMPANY NAME: ____________
ADDRESS: ____________
____________
TELEPHONE NUMBER: ____________

I WISH TO JOIN THE ONTARIO KOREAN BUSINESS MEN'S ASSOCIATION GROUP DENTAL INSURANCE PROGRAMME EFFECTIVE FEBRUARY 1, 1983. PLEASE ENROL ME FOR THE FOLLOWING BENEFITS:

( ) SINGLE COVERAGE
( ) FAMILY COVERAGE
( ) PRESCRIPTION DRUG COVERAGE/SEMI-PRIVATE HOSPITAL COVERAGE/AMBULANCE/PARAMEDICAL/APPLIANCES/ETC.
( ) EMERGENCY OUT-OF-CANADA TRAVEL COVERAGE TO PAY DOCTORS BILLS AND HOSPITAL BILLS WHILE TRAVELLING/VACATIONING OUT SIDE CANADA.
( ) TERM LIFE INSURANCE COVERAGE
AMOUNT $________(Crown Representative will assist)

RETURN THIS FORM TO THE ABOVE ALONG WITH YOUR FIRST MONTH'S PREMIUM CALCULATED AS FOLLOWS:
- DENTAL COVERAGE
SINGLE $10.00, MARRIED $32.00
- PRESCRIPTION DRUG/HEALTH COVERAGE
SINGLE $8.00, MARRIED $20.00
- EMERGENCY OUT-OF-CANADA BENEFIT
SINGLE $1.00, MARRIED $2.00
-MONTHLY ADMINISTRATION/BILLING FEE -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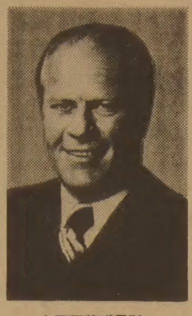
TOTAL MONTHLY PREMIUM: $________(Make cheque payable to Crown Life)
COMPLETE THE FOLLOWING INFORMATION:

1. YOUR DATE OF BIRTH: ____________
2. YOUR SOCIAL INSURANCE NUMBER ____________
3. NAME OF SPOUSE AND DATE OF BIRTH: ____________
4. NAMES OF DEPENDENT CHILDREN AND DATES OF BIRTH: ____________

# 美 어느政黨집권하든 對韓半島정책은 不變

## 포드 美前大統領、本報 LA支社와 특별인터뷰

## 北韓 폐쇄성·蘇 반대로 南北통일 현재론 遼遠



◇포드前대통령

제럴드·포드 前미국대통령은 미국의 對한반도정책은 共和·民主양당중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뚜렷한 차이가 있을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포드 前대통령은 民主黨출신의 카터前대통령이 駐韓미군의 철수를 주장했다가 이를 나중에 수정한 것도 그의 철군공약이 개인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뿐 정책적으로는 미흡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美캘리포니아州 팜·스프링스의 랜초미라지에 있는 그의 자택에서 本報로스앤젤레스支社 기자와 특별인터뷰를 가진 포드前대통령은 레이건대통령이 취임후 첫손님으로 全斗煥대통령을 초청한것도 카터의 한국정책에다 한국내에서의 변화가 겹쳐 미국이 단호한 결의를 보여줘야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재임때인 지난 74년 한국을 방문한바있는 그는 한반도의 통일문제에 대해 『현단계로선 요원하다』고 비관적인 견해를 피력하면서 北韓지도층의 폐쇄적인 사고방식과 소련이 南北韓의 평화통일을 반대하고 있는 점을 그 원인으로 지적했다.

現레이건대통령의 중요한 정책조언자이기도한 포드前대통령은 미국의 對북한관계 정상화추진도 당분간은 어려울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약 40분간에 걸친 특별인터뷰에서 진지하고 성의있게 질문에 답했다.

요즘에는 부인 베티여사가 알콜및 마약중독자 치료를 위해 鄕里에 세운 베티·포드 센터를 후원하기위해 저명인사초청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히 사회활동을 벌이고있는 포드前대통령은 『정치와 골프는 둘다 트러블이 많다는점과 용기를 잃지않아야 살아남을수 있는점이 흡사하다』고 자신의 철학을 피력하기도했다.

## 美、中共참여 提議할듯

### 韓·美·日 3角안보협력體制에

### 슐츠 訪中때

【東京=宋孝彬특파원】 오는 2일 중공을방문하는 조지·슐츠美국무장관은 최근 急增하는 소련極東군사력에 대처하기위해 韓·美·日3각 안보협력체제에 중공의 참여를 요청할것이라고 29일 일본의 NHK방송이 보도했다.

이방송은 이날 워싱턴발기사에서 29일부터 일본, 중공, 한국의순서로 極東지역을 巡訪하는 슐츠장관은 중공지도자들과 만나는자리에서 연초의 韓日, 美日정상회담을 계기로 굳어지고있는 3각 안보체제를 설명하고 韓·美·日 3국외에 중공을포함하는 미국의 새로운 4개국 對蘇방위전략에대해 중공측의 협력을 촉구할것이라고 말했다.

슐츠장관은 귀국길에 다시 일본에들러 이에대한 중공측과의 협의결과를 전달할것으로 알려졌다.

### 日 쓰시마海峽서 蘇核잠수함 발견

【東京AP=聯】 크루즈순항미사일을 장착하고있는 소련의 핵추진잠수함 1척이 29일 북규우슈와 쓰시마도사이의 쓰시마 해협에서 발견되었다고 일본방위청이 이날 밝혔다.

일본해상자위대소속의 한 대잠항정찰기가 이날오 8시30분경 수면위에 모습을드러낸채 북쪽으로 항진하는소련E2급 잠수함을 발견했다.

소련핵추진함이 수면위에서 발견된것은 지난81년12월 8일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 印각료 總辭退

### 간디首相 指示따라

【뉴델리=聯】 인디라·간디수상의 인도내각각료 54명 전원이 수상의 지시에 따라 27일 사임했다고 인도PTI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전하고 각료들의 전원사퇴가 지난 5일의 안드라 프라데시등 3개주의 회선거에서 집권 국민회의제 1당의 32년아성이 무너진데 자극받은 간디수상이 눈앞으로 다가온 중요한 뉴델리지역선거등에 대비하기위해 정부및 집권당의 인적구성을 바꾸는 한편 이에대한 장악권을 강화하려고 취한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보도들은 지난해 9월의 내각개편당시의 정황으로 미루어 이번 개편에서도 예산편성및 3월로 다가온 뉴델리비동맹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장상및 외상등 주요각료들은 바뀌지 않을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일부에서는 각료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 이번 내각개편이 대폭적인것이 될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국민住宅請約 내달부터 強化

## 3개월이상 無住宅만 分讓

### 民營아파트는 0順位 9월까지만 認定

오는 2월부터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등이 짓는 공공아파트(국민주택)는 선매청약 저축가입자중 분양받고 일 3개월이전부터 무주택자인 세대주에한해 분양받을수 있게됐다.

또한 민간지정업자가 짓는 아파트의 분양신청은 서울등 경쟁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청약예금 가입날짜순으로 분양세대수의 20배수범위안에서 우선청약범위를 정하도록했다.

민간아파트청약예금 가입자의 청약순위조정에 따른 1순위(9개월) 및 2순위(3개월) 자격과 0순위제 폐지규정은 지난해12월23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하고 12월22일이전의 기존 가입자에대한 0순위등 기득권은 오는9월30일까지 인정해주기로확정됐다.

29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확정, 2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개정규칙은 이밖에 국민주택 공급순위에서 선매청약저축에가입, 12회이상 불입한 1순위끼리 경쟁이 있을때 지금까지는 다액, 장기저축 자순으로 했던 우선순위에 1년이상 무주택자를 추가하여 다액저축자 다음으로 분양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민주택분양신청규모를 조정, 지금까지 선매청약저축가입자로서 매월 2~5만원씩 불입한사람은 33㎡(10평형)이하의주택만 신청할수있었으나 앞으로는 40㎡(13평형)규모주택까지 신청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住公아파트에대한 투기거래를 근절하기위해 年4회씩 정기적으로 입주자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불법전매행위등을 철저히 가려내기로했다.

개정규칙에따라 민간지정업자가 짓는 아파트는앞으로 전체층수의4분의1이상골조가 완성되고 전체공정의10%이상이 진행된후에야 분양할수있게됐으며 분양계약이시작된날로부터 1년이내(12층이상은 1년3개월이내)에 반드시 입주시키도록 의무화했다.

## 民正 黨職 小幅개편

### 權사무총장 밝혀

【淸州】 權翊鉉民正黨사무총장은 29일『앞으로 있을 黨職개편과 黨기구개편은 黨의기본골격을 흔들지않고 사무적인 불편을 해결하는선에서 이루어질것』이라고 말했다.

權총장은 이날 淸州지구당(위원장 鄭宗澤의원)개편대회참석에 앞서 기자회견을통해 이같이 밝히고 全黨대회직후 이루어질 黨職개편내용에 대해『한두사람이 움직인다는것은 있을지 모르나 구조적으로 바꿔야할 필요성은 느끼지않고 있으며 全黨대회는 3월하순께 치르겠다』고 말해 小幅的인 黨職개편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정치規制자解禁문제에 언급,『民正黨으로서는 解禁者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겠으나 찾아다니면서 迎入할생각은 없으며 또한영입자체도 국회의원이 되는길에 국한해서 생각하는것은잘못』이라고 말했다.

權총장은 全斗煥대통령이 國政연설에서 천명한 先進祖國의 창조와 관련해 黨의국민운동본부를 적극가동시켰다고 밝힌다음『野黨과 약속한대로 地自制문제에 관한 黨의방침을 가부간 확정짓겠지만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 토착화에 기여하는방안이 돼야하므로 국민의식·정치풍토및 지방행정의합리성등 현행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 經協1차연도 額數 2억3천만弗 요청

【東京=宋孝彬특파원】 韓日經協실무자회의는 28·29일 이틀동안 엔차관 18억5천만달러중 1차연도(82년4월~83년3월)분에대한 실무협의를 마쳤다. 南洪祐외무부경제국장을 단장으로하는 한국측은 다목적댐·상하수도 확충·의료시설정비·공해방지시설확충등 4개사업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고 1차연도 經協액수로 2억3천만달러를 공여할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일본측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총액은 일본정부조사단과 해외협력기금조사단의 타당성조사가 끝난뒤 결정짓자고 말했다.

## 먼저 南北對話응해야

### 3黨、北韓의 "美軍철수" 반박聲明

民正·民韓·국민등 주요정당들은 29일 駐韓美軍철수를 토의하기위해 南北韓諸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소집하자고 제의한 北韓의「정당 사회단체연합 성명」에대한 反駁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측은 지난18일 소위21개정당 사회단체명의로된「연합성명」을 통해『駐韓美軍을 두고는 통일대화를 논할수 없다』면서 南北韓정당사회단체의 대표와 내외의개별적 인사들이 참가하는「연석회의」를 소집, 駐韓美軍을 철수시키는 문제만을 토론하자고 주장한바 있다.

▲民正黨 金용泰대변인=北韓이 駐韓美軍철수문제만을 논의하기위해 民正黨대표1명을 포함한 南北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의한것은 대화를 빙자하여 그들의 赤化야욕의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6·25와같은 南侵의 여건을 마련하려는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북한공산집단이 6·25南侵을 恣行하지 않았다면 이미 철수했던 美軍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북한측이 진심으로 평화통일과 南北관계의 개선을 바란다면 全斗煥대통령이 제의한 南北韓당국최고책임자회담에 응하여 南北韓관계의 돌파구를 열어야 할것이다.

▲民韓黨金琮培대변인=北韓측의 이른바 정당 사회단체연합성명은 그들이 상투적으로 되풀이해온 수법으로서 우리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게하고있다.

우리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배격하고 엉뚱하게 南北韓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소집을위한 예비회담을 제의한것은 회담장을 駐韓美軍철수를 주장하는 선전무대로 惡用하려는 속셈을 드러낸것이다.

北韓측은 지금이라도 민족의 양식으로 돌아와 우리가 제의한 통일방안에 따른 대화의 광장에 무조건 나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당 李成一 대변인=이른바 政黨 社會단체의 연합 성명을통한 북한측의 주장은 駐韓美軍을 철수시켜 그들의 변함없는 무력 적화야욕을 달성하려는 얕은 흉계에 불과한 것이다.

立春문턱 봄을낚는 江心

◇봄날씨같은 푸근한 날씨가 며칠째 계속되자 긴 겨울방학이 지겨운 어린이들이 강조개잡이 배에 올라 어른들의 일손을 돕는다. 2월4일은 立春。봄의 문턱이 성큼 다가서고 있으나 월말께부터는 겨울날씨로 되돌아 가리라는 예보다。【南楊州郡瓦阜邑陶谷里앞 한강에서 韓隆기자 찍음】

## 社会漫評

## 下水道사용료 징수 85년부터 전국擴大

정부는 도시지역하수도및 하수처리시설의 확충재원확보를 위해 1단계로 오는 10월1일부터 서울·仁川·慶州·釜山등 4개도시에서부터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키로 한데 이어 오는85년1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市·郡에서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키로 했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29일하수도 사용료및 점용료의 결정기준과 연체요율산정등을 규정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마련,국무회의에 올렸다.

서울의 경우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 요금의 30~40%선 이내에서 결정, 징수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 地平線

일본의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포르노영화를 상영하려는것을 교사가 적발, 1분만에 중지된 일이 있었다. 사회에 번진 충격도는 엄청났다. 일본의 청소년문제는 교사에 대한 폭력이 큰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해마다 늘어나 81년엔 7백72건이나 되었다. 전문가들은 그원인을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파괴에있다고 진단한다. 패전후 급격한 사회변화로 부모·자녀관계가 무중력 상태를 빚어냈기 때문이다. 이 심각한 진통을 이겨낼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고민이 많다.

▼自我에 대한 자각은 대체로 7~8세때부터 싹이 튼다. 이때 가장 중요한 因子가 가정환경이며, 특히 아버지의 영향이 결정적이란것이 하나의定說이다. 유전적인 先天性보다 가정의 후천적분위기가 인격형성에 큰 몫을 한다는 정신의학적인 풀이로 보겠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정교육풍토는 이성적이기보다 감성적으로 흐르기 일쑤다. 어린이들은 표현과 행동의 자유를 주고, 아울러 책임감을 갖게 키워야 한다. 잔소리에 가까운 過保護나 지나친 放任은 오히려 탈선과 반항을 일으킬 위험이 높다.

▼교육의 지속적인 목적도 진실된 지식위에 자기를 세우고 어떤 거짓에도 압도당하지 않게 성장하도록 하는데 있다. 바로 용기와 양식의 배양이다. 미국에는 학교생활을 싫어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따로 수용하는 특수학교가 있다고 한다. 자발적으로 취미활동에 참여하거나 공부를 하고 일을 하도록「動機」를 제공해 준다. 청소를 시키고 적은 사례비를 주는 것도 흥미롭다. 여기서 자립과 규율과 책임을 깨닫게 된다.

▼사학자 토인비의 말대로 우리는 지금「도덕의 단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낡은 가치관에 대치할 새로운 가치관이 확립되지못한 상태다. 소년기는 꿈을 먹고 사는 세대다. 이들의 꿈은 곧「미래의 현실」로 개화할것이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들은 꿈을 잃고있어 안타깝다. 이것은 가정과 사회 학교 모두의 책임이다.

▼부산의 세어린이 살해사건 범인으로 17세 소년이 붙잡혔다。어느 한 교사의 제자유괴살인 못잖게 무서운 쇼크를 우리에게 던져 주었다. 이「철부지 犧牲」에 우리는 과연 돌을 던질수 있을까…。어른들 모두가 책임을 뼈저리게 느낄수밖에 없다. 논쟁과 방임이 계속되는한 청소년들은 더 시들고 병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같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가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주택, 토지, 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mpany
1560 Bayview Avenue Toronto,
Tel: (B)488-2444 (R)759-4560

이민수속에 관한 제반사항
=무슨 내용이든 기밀엄수합니다.=
▫취업이민
▫초청이민
▫WORK PERMIT
▫유학비자
자세한 상담은 몬트리얼의 Mr. 윤에게 연락하세요.
☎ : 1-(514)-933-0217
1827 St. Cathorin,
Montreal H3H 1M2
*50% ~70% 수속비 반환 보장
Consultin Immigration Services
Immigration Consultation

한국인이 경영하는 미홍콩 스타일 전문
Rose Garden
중국 식당
"단체손님 환영"
■ Free 주차장
■ 각종 술 full-licence 취득
■ 주문시 배달합니다.
■ 매일(년중무휴)
오전 11:30~새벽 1:00까지
Bathurst / St. Clair / Vaughan
538 St. Clair W. (세인·클레어×베다스트)
656-0456
유 창 준 654-6609

Monami Restaurant
もなみ
OPEN Mon~Fri, 11:30~2:30
◎각종 스시및 일본식 요리
아늑한 일본식「다다미방」이 점심시간에도 이용하실수 있게 준비되어 있읍니다
EGLINTON AVE / BAYVIEW AVE / Monami
114 LAIRD DR. Toronto
PHONE: 421-6016

Grant Brown
GM
■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이 한 구
1575 WESTON RD.
☎ : 247-7161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Masa
진짜 일본음식
Japanese Restaurant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
977-9519
All major credit cards accepted
195 Richmond West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SPECIAL
6주년 기념
SANYO
$595.00

분납 가능
교포 경영
김 성 수

## 日曜日아침에

# 한국·日本 그리고 美國

## 「3角 安保협력」은 우리利益에 맞도록

李基鐸 <延世大교수>

우리는 구한말이후, 다시 제2차세계대전으로부터 완전히 極東에서 그 어떤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힘을 모색해가는 새로이 등장한 일본을 직면하는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나까소네수상은 訪韓에이어 일본이 국제권력정치의 章에 등장하는 과시를 겸해 訪美를끝냈다. 이에 즈음하여 우리는 도리어 내적으로 깊은 반성을 해야할 시기라고도 볼수있을것이다. 나까소네의 방한과 방미를 둘러싼 「우리의 문제」란 어떤것일까, 한번 생각해본다면 더욱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다.

### 日의 탈바꿈 그후

흔히외교란 「국내정치의연장」이라고 교과서에서 말하고있다. 결국 나까소네수상이 미국으로부터 돌아와서 귀착하는점은 전후 일본의 정치질서를 지배해온 맥아더에의해 주어졌던 일본헌법을 고쳐 새로운 일본의 정치질서를 방향지어야하는 작업에 귀착하는것이다. 나까소네수상이 미국에서 약속한 일본의 새로운 방위구상을 표출하면서 말한「일본의 不沈航母化」라든가「소련 백파이어폭격기의 防壁이 되겠다」든가, 더욱 나아가서 한반도군사환경에도 깊은 영향을 줄 일본의 쓰가루(津輕)나 소야(宗谷) 해협을 포함한「대한해협의 봉쇄」등의 군사적이며 전략적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憲法改正」으로 상징되는 일본의 戰後政治秩序를 탈바꿈해야하는것이다. 일본은 對韓外交 혹은 對美外交라하지만 결국 일본자체의「對內政治」의 연장인것이고보면 사실상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할수있을것이다.

이처럼 對內政治의 연장에 불과한것이 외교의 표현이라면 우리에게있어 절실한것은 「한반도 문제」에대한 反省이라고 할수있는것이다. 아래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보기로하자.

우선 기본적으로 문제되는 변화는 과거 30여년간 우리는 군사적으로 강력했기에 極東에서 미국이 의지하는「同盟國」으로 존속하여 왔는데 일본이 이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代身하여 가게 될것이라는 점이고 여기에서 다시 두가지문제점이 제기되는것이다. 그하나는 미국이 극동에서 韓國重視政策으로부터 日本重視정책으로이동하면서한미간에수정이 점차로가해질것이 아닌가하는점이며, 둘째 지금까지 우리는 對日政策에서 미국을 매개로 일본이라는 파워를 컨트롤할수있었으나 앞으로의 韓日關係는 군사적인면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대처를 해야한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는것이다.

이미 제기된 문제인 安保支援을 위한40억달러 經協이 이를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문제들 즉 우리가 미국과 軍事政治관계를 어떻게 강화하여 갈것이며 대한해협봉쇄라는 일본의 군사정책에서 보듯이 일본과의 군사관계를 어떻게 진전시킬것인가하는 문제들을「克日」과「安保協力」사이를 방황함이 없이 우리의「이익」에 집약시킬수 있어야 한다고본다.

둘째는 한반도의 安全體系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일본의 군사력의 성격문제인 것이다. 일본의 헌법개정이라는 政治再編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금지되어있는「集團自衛權」문제이다. 지금은 일본열도만의「有事時」에만 美日간에 軍事協力을 한다는 극히 이기적인 성격이다. 가령 과거의 예로 미국의 월남전에 일본이 군사적으로 비협조적이었다던가 혹은 미래에 있을수 있는 중동의 군사분쟁에서 기여할수 있는「유사시」에도 일본은 무관하다는 것이「專守防衛」라는 현행憲法上의 제약이며 이제약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하는 점인 것이다.

이 문제는 西獨이 NATO와 EC라는「유럽화」속에서 성장하여온 것처럼 일본도「아시아化」라는 건전한 과정속에서 순응이 되겠는가 하는 점이다. 나까소네는 70년초 방위청장관당시『자기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이 왜 군국주의냐』라는 발언과 함께『1천해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한 장본인이다. 자기나라를 지킨다는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누구와 함께」그리고「무엇을 지키느냐」가 오늘날 엄나라 우리의 문제인것이다. 일본은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자유와 경제체제」속에서 공업력과 군사력의 방향을 아시아의 集團安全化에 이바지해야하는 것이다. 일본도 고립을 면하기 위해서는 그길밖에 없다고 본다.

### 한반도 危機 본질

이번 나까소네의 방한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혹은 한국의「安定」이란말이 긴요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美日협상에서도 한국의「안정」을 위해서 나까소네 방한을 레이건대통령이 격려하고있다. 한반도 혹은 한국의 안정은 물론 일본열도의 정치 군사적 안정, 나아가서 극동의 안정과 깊이 관련하는 것이다. 거꾸로 우리문제로서 한국이나 한반도의 안정을「危機化」할 요인이 무엇인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한반도의 안정이 깨질 위험은 두가지가 있다고본다. 그 하나는 한국의「경제적 위기」의 잠재성이다. 이 경제적 위기는 한국의 책임에서만 연유한것이 아니다. 지난69년 미국이 철군을 결정하고 이를 대신하는「自主國防」이란 代案에서 기인한것이었다. 우리는 충실히 70년대를 자주국방이라는 경제적출혈에 최선을 다하였다. 실제에 있어서 막강한 공업력을 갖고 있는 서독도 영국도「자주국방」은 못한다. 앞으로 자주국방을 경제적으로 지탱하려면 中東으로부터의 달러의 流入이 대폭 감축될때에는 경제적위기를 낳을것이며 이 경제적위기는 사회적 혹은 정치적위기까지 낳을수 있고 나아가서 남북한의 군사균형에도 영향을 미칠수있는것이다.

### 撤軍과 自主國防

아마도 이것이 한반도 安定과 危機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국과 일본이 81년의「레이건—스즈끼」회담에서「한국문제」의 문제점을 논의한 이유이며 미국이 일본에게「安保지원」을 권하였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이러한 가상적 위기의 본질은「경제적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철군」이라는 결정을 상쇄하는「자주국방」이라는 정치적 이유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해결도「경제적」으로는 불가능하며「정치적」으로만이 가능한것이고 보면 앞으로 韓·美·日의 공동책임으로 해결해야할「集團的 問題」가 되는 것이다.

물론 한국에 파국이 온다면 일본열도의 안정도 파괴되리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으며 미국의 극동에서의 이익을 30여년간 기초시켰던 한국이라는「기지」의 동요로 미국은 태평양에서의 긴요하고 충실한 발판을 잃을수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한반도안정의 파괴는 북한의「對內政治」에서 기인하는 문제다. 북한의 金日成의 死後 빚어질 북한의 정치적 혼란은 우리예상을 훨씬 넘을것이라는 점을 예측해야하는 것이다. 金正日의 즉각적인 몰락과 함께 군부나 그 어떤 다른형태로 과격한 혼란을 거쳐서 새로운 권력이 탄생 될 때까지는 한반도의 위기라고 말할수있는 것이다. 北의 권력승계라는「위기」를 우리는 지속적인 안정을 유지하면서 견디어야 한다는것이다. 지난 40년간의 통치후에 올 혼란은 능히 우리에게 있어서나 극동의 위기일수 있는것이다. 이미 북한의 권력의 기반이었던「족벌체제」가 여러가지 형태로 해체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끝으로 문제되는 것은 이 모든문제를 처리해나갈 우리의 對內政治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문제가 아마도 80년대를 거치면서 그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나 정치적해결로 나아간다고 볼때에 이러한 장기적인 한반도문제를 대처할 대내의 정치적 기반이 문제의 요체라고 할수 있는것이다.

확고한 대내적인 정치적기초를 갖고서만이 장래의 위기와 한반도문제의 해결에 대처할수 있다고본다.

---

# 場外로번진「말의盛饌」

## 地區黨개편계기 활기띤 年初 政街

# 「校長論」시비로 1回戰

## 民韓"새벽·촌닭論"에 民正"中天論"반박

## 잇단 獨占·多黨制시비에 雙方 총력전

○…各黨의 창당이후 처음 열린 지구당개편대회를 계기로「말의 盛饌」과 함께 與野간의「말싸움」이 正初 政街에 화제를 모으고 있다。與野간에 주거니 받거니 계속되고 있는 말의 攻防戰은「校長論」에서부터 여당 獨占論시비、多黨制시비로까지 번져 熱氣를 더해가고 있다。더구나 이「말싸움」은 지난 20일 民正黨의 지구당개편대회가 시작된후 더욱 본격화되고 있는 인상이며 民韓黨이 30일로 개편대회를 모두 끝낸뒤에도 계속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때문에 祝祭와 집안잔치가 돼야할 개편대회장은 對野 對與의 聲討·비판장으로 바뀌는가하면 특히 民韓黨대회장의경우 黨權·非黨權派간의 指導路線시비까지 곁들여 이래저래 뜨겁기만했다。

○…與野 攻防은 당초 1월초 場外에있던 民正黨과 지구당개편대회에 熱을 올리고 있던 民韓黨이「校長論」시비로 첫接戰을 벌이면서부터 시작됐다。

柳致松民韓黨총재가 지난 6일 大邱에서 국회활성화문제를 거론하면서『국회 상임위원장이 담임선생이고 국회의장이 교장처럼 돼서는 국회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으며 국회는 자유로운 토론장이되어야한다』고 民正黨의 국회운영방법을 공격했다。이같은 지적에 발끈한 民正黨은 이틀뒤 黨職者회의를 갖고『의원을 국교생에 비유한것이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정치인으로서는 당치않은일』이라고 못마땅해했고 金珞泰대변인도『자신이 의원이면서 의원을 卑下한것은 상식밖의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첫是非는 柳총재가 10일뒤 서울冠岳지구당 대회에서『제1野黨당수가 당원에게한 말을 헐뜯고 나오는 현상은 아직도 維新殘滓가 남아있는 증거』라고 반격하고 나섬으로써 是非再燃의 기미가 보였으나 短期戰으로 중단。

○…民韓黨의 黨權·非黨權派의 상징적논쟁이었던「새벽論」과「촌닭論」시비는 그불똥이 民正黨으로튀겨「中天論」으로 번졌다。

당초 논쟁은 民韓黨의 黨權도전세력이었던 辛相佑전 사무총장의『새벽은 깨서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지 잠자는 자에게는 오지않는다』는「새벽論」에서 비롯됐다。「새벽論」은 聖書의『그 날은 도둑처럼 온다』는 말이 원용된 것으로 보이며 黨의「현실安住」의 자세를 꼬집는 非黨權派의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이에 柳漢烈 사무총장은『새벽이 왔다고 조급하게 날개를 털고 울어대는 촌닭이 되어선는 안된다』고「촌닭論」을 제기했던것。「촌닭論」이 나오면서「새벽論」이 平價切下 된것은 사실이지만 兩論이 부딪치는 가운데 상승기류를 탄것이 새벽녘을 빗댄「민주주의의 회복」。『여당은 여당의 빛깔이 있어야 하고 야당은 야당의 빛깔이 있어야 한다』는「빛깔論」을 …

「黨 논쟁」등이 튀어나오면서 공격의 촛점은 정부·여당쪽으로 모아져 갔다。民正黨의 李鍾贊총무는 불길이 번질조짐이 보이자『현실을 모르는 어처구니없는 논쟁』이라고「새벽論」과「촌닭論」을 싸잡아 비난하면서『민주라는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는데 누워자는 사람이 어찌 새벽이 왔는지 알겠느냐』며「中天論」을 들고 나왔다。

○…「정치활동被규제자解禁」을 둘러싼 民正·民韓의 舌戰은 解禁이 안고있는 중요성과 특이성을 반영하듯 미묘하게 對峙했다。

民韓黨이 개편대회에서 마다「大幅解禁」을 熱唱하자 李鍾贊民正총무는 21일 慶山·永川지구당대회에서『지난 2년동안 기회가 있을때마다 解禁을해야 민주주의가 된다고 외치던 사람들이 지난 대통령國政연설에서 막상 解禁조치가 천명되자 열띤반응을 보이지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무척 意味있게 지적。

이와 관련, 民正黨의 權翊鉉 사무총장은『解禁인사들이 들어오면 이제현역들은 발잠을 못자게 되는것아닌가』고 조크했고 李鍾贊총무는『지금 야당의원은 아마추어이며 소위 在野인사는 프로라는 뜻인것 같다』고 民韓黨을 계속겨냥。

그러자 民韓黨은 22일의 光州 기자회견에서『被규제자와 우리는 한 식구로서 그들이 규제에서 풀리는 그날 우리들은 雙手를 들어 그들을 환영할것이며 한食口를 차릴것』이라고「한食口論」을 유달리강조하기도。

○…多黨制시비는 지난 14일 民韓黨의 仁川東區 개편대회에서 金判述의원이『民正黨이 말하는 多黨制란 그들은 코끼리가 되고 우리는 생쥐처럼 되게하는것』이라는 비유에서 비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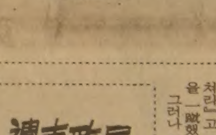
이어 柳致松총재는 春川·春城、咸平·長城등 院外지구를 돌때마다『多黨制가 야당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이라고「多黨制」를 마구 두들기기 시작。

이에 李民正총무는『그동안 兩黨制하에서 겪은 극한대립과 흑백논리를 막기위해서는 … 만 해서는 안된다』고 즉각 반격을 시도。

이때부터 불붙기 시작한「獨占시비」는『民正黨은 정치자금의 90%이상을 獨占해왔고 백만 당원확보로 조직을 獨走해왔다』(民韓 金鉉圭의원)는 반박과『우리는 10·26사태이후 같은 조건 아래서 창당했으며 그 뿌린 씨 …

22일 光州회견에서『民正黨이 참다운 정당정치를 하려한다면 조직과 자금 그리고 선전기능을 독점해서는 안된다』고 民正黨의「獨占 현상」에 선제 砲門을 열었다。

이에 李載濚 民正黨대표는 25일 麗水지구당 개편대회에서『농사도 안짓고 남의농사 짓는것 가지고 日可日否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야당은 조직강화、당재정 조달등을 위해 더 땀을 흘려야지 투정 …





○…民正·民韓 兩黨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는「一黨獨占·獨走」시비는 쌍방이 黨力을총집결시키고있는 느낌。

柳致松 民韓黨총재는 지난 …

○…여당의 경우 업적PR와 포부를 피력하는것도 지구당대회의 한특징。▲民正黨은 대회를 통해▲全斗煥대통령이 國政연설에서 밝힌 선진조국의 창조▲의식개혁▲수많은 포부▲집권당인 民正黨이 가져야할 좌표 설정등을 특히 강조했고 여기에 祝辭를 빈위원장 칭송이양념으로곁들여졌다。

「先進祖國의 창조」는 격려차 내려간 중앙당직자는물론 대부분의 의원들이 한마디씩 걸친 主종목이었다。李載濚대표위원이『덜먹고 덜입고 덜써서 하루빨리 先進조국을 만들자』고 외치면 權翊鉉총장은『의식개혁을 통한 정치의 선진화』를 내세웠고 李총무는『선진조국 창조란 나와 국민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또 丁來赫국회의장이『그동안의 정치 경제 사회안정을 바탕으로 先進化로 매진하자』고 역설하면 陳懿鍾정책의장、尹碩淳사무차장은『우리는 보다 겸허한 자세로 先進化를 이룩해야 한다』고 和答。

○…이에반해 民韓黨은「時流性 이슈」로 분위기를 고조시킨뒤「참여의 논리」와「제1야당의 갈길」을 통해 정부·여당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浮刻시키는 陽動작전을 펼쳤다。

解禁인사문제와「특정인들에 대한 관심」은 지도부가 自制를 촉구할만큼 인기품목이었고「평화적 정권교체」를 철칙으로한 선거법、언론기본법、국회법 개정과 地自制실시문제는 民韓黨의 위치를 뒤집히시키는 필수主내용으로 活用。

柳총재는 慷慨赴死易 從容就義難(비분강개해서 죽기는 쉬워도 의롭게 대처하기는 어렵다)이라는 故事를 원용, 참여의 논리를 폈고 金炯來의원은『태산이 엎다 해도 소나무 진달래는 죽지 않고 다리밑이 꽁꽁 얼어도 물고기는 죽지않는다』고 民韓黨의 강인성을 강조。

특히 民正黨의 당원훈련을 놓고『反共 통일은 이나라의 國是이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徐淸源의원)『民正黨의 트레이닝은 안발도 다발도 무상출입하는 眼下無人의 복장(朴炳一의원)』『유니폼입고 얼씬거린다고 민주주의가 되는게 아니다』(林在正의원)며 집중 포격을 가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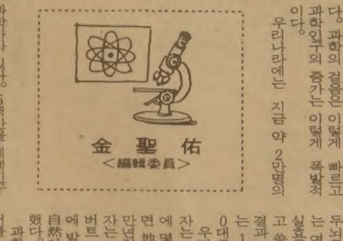
○…이러한 與野간의 舌戰은 民韓黨이 30일로 지구당 개편대회를 완료함으로써 일단 소강에 접어든것으로 보이나 民正黨은 아직 절반의 정도만을 치른상태여서 당분간 계속될조짐이다。場外攻防은 부들이 침묵을 지킨한 …

【李成俊·李以春기자】

---

## 메아리

## 科學立國



金聖佑 <編輯委員>

5천kg까지 실을수있는 비행기에 1만kg의 승객을 태우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승객들이 반반씩 번갈아 비행기안에서 뜀뛰기를 하면 된다는 우스개소리가 있다。정말 날고 있는 비행기안에서 사람이 뜀을뛸때 몸이 공중에 떠있는 사이의 비행기의 총중량은 사람 무게만큼 가벼워질까 아닐까。얼른 생각하면 가벼워질것도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그렇다면 새장에 갇힌 새가 안에서 날때는 새장의무게가 어떨까。새의 무게만큼 가벼워진다。새장은 바람이 통하고 비행기는 밀폐되어있다。비행기안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뛰어올라도 압력때문에 비행기의 무게에는 변함이 없다。

이번에는 사람이 밥을 먹을경우 그 먹은음식의 무게만큼 체중이 늘까 안늘까。위장이 떠받치고있으니 저울눈이 늘것 같지만 정확하게는 체중이 는다。그러나 사람의 몸은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 끊임없이 水分이 달아난다。그래서 식사후 당장은 체중이 늘어도 증발하는 水分量만큼 시시각각으로 체중이줄어든다。

重力의 법칙에따라 사람의 체중은 지구의 중심에서 멀수록 가벼워진다。지구의 赤道는 北極이나南極보다 부풀어 있으므로 赤道부근의 아프리카에서 체중을 달면 兩極보다 0.5%가량 가볍다。체중이너무 나가서 걱정인사람은 赤道에 가서 살일이다。땀으로 또 체중이 더 줄테니까。

科學은 이렇게 우리의 생활속에 있다。그런데 우리는 과학을 정체를 알수없는 비행체 정도로 생각하기가 일쑤다。인공위성이나 컴퓨터의원리만 모르는것이 아니라 바닷물은 왜 짠지、산꼭대기에 오르면 태양에 더 가까운데도 왜 시원한지、추우면 왜 떨리고 술을 마시면 왜 얼굴이 빨개지는지 등등 생활주변의 과학적 의문에 대해서도 우리는 둔감해있다。그런것은 모두 과학자나 알일이란듯이。과학이 생활화되어있지 않다。우리는 과학과 과학자를 멀리 놓는다。과학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다。

「과학자」라는 말 자체가 세계적으로 처음 나온것은 1840년이었다。그이전까지는 각 전문분야별로만 불리던것을 케임브리지대학의 한 교수가 총칭하는 이름을 만들어냈다。

과학자의 수는 세계 인구의 급속한 증가율을 훨씬 능가하여 늘어가고 있다。르네상스 이래 과학하는 사람의 증가는 대충 1백년마다 1백배가 되어온것으로 집계되고 있다。1680년께 1개 소대정도이던 과학자는 1780년께 연대병력의 수로、1880년께는 사단병력의 수로 늘어 현재 전세계 과학자의 수는 6백만명 이상이다。원자력시대가 열리던 2차대전 직전 세계의 과학자는 모두 약1백만명이었다。한 시대의 과학자 수는 그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과학자 총수의 90%에 이른다。오늘날 우리가 가지고있는 과학지식은 그 9할이 현재 활약중인 과학자가 1920년대에 대학의 문을 나오던 무렵에는 아직 이 세상에 없던 것들이다。과학의 걸음은 이렇게 빠르고 과학인구의 증가는 이렇게 폭발적이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약 2만명의 과학자가 있다。6백만을 세계인구로 평균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과학자가 적어도 5만명이 있어야 한다는계산이다。게다가 과학자가 先進國에 偏在해 있다는것을 생각하면 先進指向의 우리는 부끄럽다。學國的기술개발로「先進祖國의창조」를 이룩하자는 소리가 높다。기초과학연구가 바탕이 되어야하고 고급 과학두뇌가 양성되어야한다。

올 대학신입생 선발에서 우수한 두뇌를 기초과학계통으로 돌려보려는 여러 호소들은 결국 또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맥이 풀리고 씁쓸해진다。미국의 어떤 조사결과 보통사람의 지능지수(IQ)는 100전후인데 과학자는 150대로 나타났다。

우리의 우수한 두뇌들에게 과학자는 外界人인가。둥근 돌의 표면에 몇가닥의 줄무늬가 있는것을 보면 地質學者는 그 위를 스쳐간 백만년전의 氷河소리를 듣는다。과학자는 詩心을 갖고있다。철학자 허버트·스펜서는「진실로 과학연구에 발을 들여놓은적이 없는 사람은 自然이 가진 詩情을 모른다」고 말했다。

과학자가 하는 일은 사물속의 질서를 찾아내는 일이다。자연은 기본적으로 질서정연하다는 확신위에 과학이 선다。과학자가 발견해내는 질서속에는 美가 있다。과학자는 여기서 詩人과 畵家의 마음과 눈을 함께 갖추어 동시에 만족하는것이 머리좋은 과학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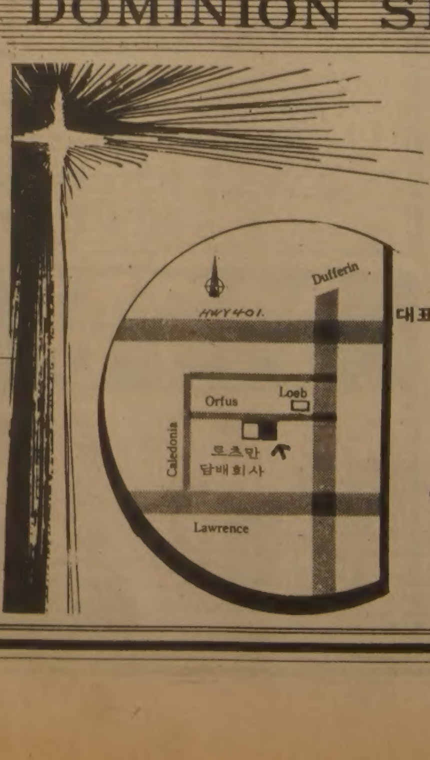
---

●비데오기계및녹화기판매
100% AFTER SERVICE
●600여각종비데오대여
678 BLOOR ST. W.
☎ : 532—0210
한국비데오센터
대표 손병헌



도매상 Cash & Carry

DOMINION SMALLWARES





확장이전공고

한인교포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저희 도매상은 아래의 장소로 확장이전하게 됨에 인사드립니다.

배전의 성원을 바라오며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요.

대표 Sol Dennis 쎄일즈·매니저 김근래 올림.

새주소 : 47A Orfus Rd.
(도매상 Loeb근처).
☎ : 789—7214~5
(종전과 같음)

이전날자 : 1983년1월4일(화)

# 白堊館떠나 6년…70세의 「즐거운野人」 제럴드·포드

# "政治는 이젠 싫다"

## 골프통해 慈善·社交활동

## 訪韓때 환영人波 큰감명

本社 LA支社 취재팀 自宅찾아 特別 인터뷰

◇생각에 잠겨… 타마리스크 컨트리 클럽에서 만난 포드 前대통령. 마침 아이젠하워종합병원의 증축모금을위한 브보·호프 디서트 클래씩 골프대회가열려 이곳에 참가한 포드씨는 멀리 펼쳐진 필드를 바라보며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미국의 전대통령(1974년8월~1977년1월) 제럴드·포드(70)의 정치철학은 골프에서부터 시작된다.

『골프의 묘미는 그것이 지니고있는 「업치락뒤치락 변화」(up and down)에 있읍니다. 항상 평탄한 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지기도하고 모래에 파묻히기도하며 어떤때는 공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실망하지말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그는 골프와 정치가 유사한점은 트러블이 많다는것과 두게임의 결론이 『용기를 잃지말고 희망을 가져야 살아남을수있는 성격을 지닌것』이라고 했다.

제럴드·포드는 백악관에서 물러난후 정치관계로보다는 골프로 TV에 얼굴이 더 자주 비친다.

그는 골프를 취미로만 치는것이 아니라 골프를통해 자선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정계들과도 만난다.

콜로라도州 베일 (포드의 동계별장이 있는곳) 에서 「제럴드·포드오픈」 골프대회를 열기도하며 아이젠하워종합병원 증축기금을위해 매년1월 팜스프링스에서 막을올리는 골프대회(Bob Hope Desert Classic)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기도 한다.

본보와 인터뷰약속을한 지난 21일은 「마킹 보브·호프·클래식」이 열린첫날이었으며 포드는 민주당의 실력자인 토머스·오닐 (연방하원의장)、골프황제로 불리는 잭·니콜라스와 한조가되어 타마리스크 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치고 있었다.

골프장에서는 누구나 그를 「미스터 프레지던트」 라고 부른다 (미국에서는 정치인과 군인들은 은퇴해도 과거의직책을 호칭해 주는것이 관습이다). 그의 T셔츠에는 「미합중국대통령」 이라고 쓴 문장이 새겨져 있으며 경호원들이 무전기를 갖고 따라 다녀 현직대통령인지 전직대통령인지 구분을 하기 힘들 정도다. 대통령을 그만두면 그 호칭을 사용하지않는 한국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골프장에서 일어나는 광경은 미국 사회계급의 단면을 보여준다. 『누가 권력이 있느냐、돈이 있느냐』에 따라 대접받는것이 아니라 『누가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느냐』에 따라 사람무게가 저울질 된다. 보브·호프는 코미디언이지만 레이건대통령이나 포드、오닐하원의장과 말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다.

타마리스크 컨트리클럽에서 자택으로 돌아온 포드는 곧장 서재에서 본보기자와 만났다. 『성적이 좋았느냐』는 질문에 『오늘은 형편없었다』면서 파이프 담배에 불을 당긴다.

대통령재직당시 골프를 치면서 제일 입장난처했던 일은 무엇이냐고 묻자 『구경하던 사람이 나의 공에 맞는것입니다. 정말 난처해요』 라면서 웃는다.

대통령시절 그의 공이 관중의 머리에 맞아 병원에 입원、포드가 폐유를 비는 전부까지 보낸 에피소드도있다.

포드는 아이젠하워대통령과함께 미국대통령중 골프에 가장 심취한 대통령으로 꼽힌다. 아이젠하워는 각료회의를 골프장에서 열기도 했었다.

팜스프링스의 부촌으로유명한 랜초 미라지의 샌드둔스거리에 자리잡은포드의 저택은 개인용 골프장과 둘이붙어있다. 문을 열면 바로 골프장이다. 대통령을 물러난후 팜스프링스에서살기로 작정한것도 골프때문인것같다.

자택은 사무실을 겸하고 있으며 경호원이 출입자들의 신분을 확인한후 문을 열어준다. 여비서가 3명.

그가 부통령직을 승계받았을때 (애그뉴 후임) 美의회가 조사한 그의 개인 재산액은 25만달러였으나 지금은 집값만해도 1백만달러는 훨씬 넘을듯 싶었다.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포드는 『내가 7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환영인파는 잊을수가 없소. 연도에 나온 그 많은 관중을 당신도 그때 봤겠죠?』 라면서 『그렇게까지 열렬하게 환영받으리라고는 자신도 미처 기대하지 못했다』고 한다.

『朴正熙대통령이 부인을 비명에 잃은지 몇달 안됐고 나도 아내가 암수술을 해 치료받고 있던때라 우리 두 사람은 모두 퍼스트레이디 없이 만난 특이한 상봉이었읍니다. 그래서 서로 친근감을 더 느꼈어요』

그는 화제가 카터의 주한미군감축으로 돌아가자 상당히 음성을 높였으며 카터의 정책을 못마땅해하는 표정이었다. 남북통일에 관한 장래전망에 대해서는 『글쎄、언젠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는…』 하며 현재로서는 요원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포드는 의회생활25년에서 미하원군사분과위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를 잘 알고있다고 하면서 『53년7월에 당시 덜레스국무장관과 판문점에 가서 포로석방사인을 했었죠. 그것이 나의 첫 한국방문이었고 두번째는 대통령이 되고난 후 였읍니다. 한국방문은 두번다 잊을수없는 분위기였죠』 라고 말한다.

포드의 팜스프링스자택부근에는 「베티·포드센터」 가 있다. 이 센터가 무얼 하는곳이냐고 묻자 포드는 활기띤 표정을 지으며 『베티·포드센터는 알콜중독과 마약중독자들을 위한 병원겸 연구기관입니다. 내가 그 자료를 갖고있다』 라면서 서류가방을 가져와 병원소개 팸플릿을 꺼낸다.

베티·포드여사 (64)는 몇년전 알콜중독증을 치료받기위해 롱비치병원에 입원、화제가 됐었다. 베티여사는 남편의 오랜 정치생활을 뒷받침하는 동안 정신적인 압박감이 심해져 취침용으로 술을 입에 대기시작한것이 중독증으로까지 발전한것으로알려졌다.

베티·포드센터 소개책자 첫머리에는 『나는 옛날에는 아주 예의범절이 바르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었다. 그런데 언제가부터 뭔지 파악을 못하게되고 나중에는 살고싶은 의지까지 잃어 버렸다. 나는 술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는 나자신의 가치를 발견했다. 세상에는 알콜때문에 나와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고 적혀있었다.

최근에 이혼한 조안·케네디(에드워드·케네디상원의원부인)의 케이스에서도 이같은예는 찾아볼수있다. 조안·케네디여사도 스트레스를 못이겨알콜중독에걸렸으며 결국은 자녀들까지 잃을까봐 에드워드·케네디가 차기대통령출마포기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포드는 베티·포드여사와 결혼하던날 선거연설을하고 오느라고 결혼식장에 한시간이나 늦게 도착해 신랑이 도망간줄 알고 소란을 피웠던 뼈아픈 경험을 지니고있다. 포드는 하원야당 총무시절 『2년만 국회생활을 더하고 가족과 함께 조용히 살기로』 부인과 약속했을때 부통령에 지명되었으며 결국은 닉슨下野로 대통령직까지 승계하게되어 부인의 정신적 긴장은 극에 달했다.

그래서 『레이건의 임기가 끝나면 공화당후보로 대통령에 한번 더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정색을하며 『절대로 안할겁니다』라고 한마디로 잘라서 말한다.

그는 월남전 패전에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상처가 깊었던 미국의 국론을 재화합하여 국력을 회복시켜서 얻은 높은 평가를 겸손하게 받는다.

『그게 모두 2백년간 국민모두가 주인이 되어 잘 다듬고 발들어온 훌륭한 제도와 전통덕분이다. 민중이 훌륭한 지도자를 정점으로 힘을 모아서 키운 제도말이다. 민간우위의 확고한 원칙은 민주제도를 성숙케하고 국력을 바른 역사의 방향을 향해 끌어모으는 힘이 되어주었다고 본다』

이때 여비서가 들어와 다음 스케줄이 있다고 알려왔다.

글 李哲기자

사진 朴世勳기자

## 한국문제 一問一答

# 南北 平和統一은 蘇聯서 원하지 않아

# 駐韓美軍은 전쟁예방군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의 랜초미라지에있는 자택서재에서 특별기자 인터뷰에응한 포드 前대통령。그는 특히 한반도문제에대해 자신의견해를 분명히밝히면서 재직시의 여러일화들을 털어놨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한국에대한 전통적인 정책차이점은 무엇인가.

▲차이라고 지적할만한 뚜렷한것은 없다. 미국의對韓정책은 한마디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관점으로 집약할수있다.

駐韓미군은 『전쟁지원군』의 개념이 아니라 『전쟁예방군』의 기능에 맞춰져있다.

—귀하가 74년11월 한국을 방문했을때는 주한미군을 감축하지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후 카터는 주한미군을 일부 철수시키겠다고 들고나왔다. 레이건이 백악관에들어서자 다시 주한미군의 증강을 발표했다.

이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출신대통령이 한국방위개념을 달리한 뚜렷한 증거가 아닌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라기보다는 역대대통령중 카터가 의견을 좁달리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는 카터에기가 나오자 약간 억양을 높였다)。

나와 그는 한국정책에 대해 전적으로 의견을 달리했다。(Totally Different)라는 단어를 사용)나는 주한미군강화만이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하고 전쟁발발의 브레이크를 걸 수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주한美공군력강화를 나는 중요시했다.

그러나 카터는 한국방위개념을 달리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대해 너무 많은 약속을 해 놓아 필요이상의 짐을 지고있다고 생각했다.

카터는 미국이 걸머지고 있는 이짐의 일부를 줄여도 한국방위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큰 실수였다. 주한미군감축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한국에대한 자세가 흔들리고 있다는것을 북한에 보여 주어서는 안되기때문이다. 카터도 나중에는 자신의 한국정책을 후회했다.

—「후회」했다는 말인가.

▲(약간 망설이다가) 카터는 한국정책을 나중에 수정했다.

—레이건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백악관 첫손님으로 全斗煥대통령을 초청했다. 카터의 한국정책과 한국내의 변화가 겹쳐 미국이 무엇인가 단호한결의를 보여주는것이 시급한 때였기때문이다.

레이건은 왜 그와같은 대담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가?

▲카터의 정책에 미국정계에서는 놀라움을표시했다.

—귀하가 키신저 (당시국무장관)를 대동하고 한국을 방문했을때 당시 朴正熙대통령에게 국내정치긴장을 좀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 한적이 있다는데.

▲나는 한국국내정치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우리의 희망하는 바를 표시했다.

—그때 朴대통령의 대답은。

▲朴대통령은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의 표정을 읽을 수가 있었다. 그는 우리의 희망을 충분히 이해하겠다는 無言의 반응을 보였다.

—귀하는 당시 한국을 방문한후 바로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로 날아가 브레즈네프와 미·소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때 소련과 중공이 한국을 승인하면 미국도 북한을 승인하겠다는 한반도의 교차승인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는가?

▲나는 브레즈네프와 두번 만났으나 한반도문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全斗煥대통령이 최근 북한에 제의한 남북회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성공여부를 따지기 전에 한국이 평화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대외적으로 분명히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면에서나 적절하고 훌륭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애물들이 가로놓여 있다.

—무엇이 장애물인가.

▲북한 지도층의 사고방식이 문제다 (그는 남북회담이 어려울것이라는 제스처를 보냈다)。

—한반도의 남북평화통일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현단계로는 요원한 얘기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소련이 그것을 원치 않고 있다. 나는 소련이 남북평화통일을 적극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 「두개의 한국」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란 뜻인가.

▲『웃으면서』 지금도 두개의 한국이 존재하고있지 않은가.

—미국은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할것으로 보는가.

▲(말없이 가만있다가) 그것도 당분간은 어려운 얘기이다.

—레이건대통령은 한국에대해 여러면에서 과격적인 정책을 택한것같다.

레이건의 임기가 끝날 경우에도 이와같은 정책의 흐름이 계속될것으로 보는가. 아니면 변화가 있을 것으로보는가.

▲레이건이 재선이 되든 안되든 또는 공화당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든 안되든간에 미국의 對韓정책은 별로 변화가없을 것으로본다.

## 욕심없고 敵이없는 大道의 人品…레이건의 몇명안되는 「중요 助言者」

제럴드·포드는 레이건美대통령이 중요한 정책방향을 잡아가기 앞서 자주 청해서 조언을 듣는 몇명 안되는 元老중의한사람이다.

그것은 단순히 포드가같은 共和黨출신 선임자라는 점에서 禮遇를 하는것 이상의 배려이다.

레이건은 포드가 추구했던 평범하면서도 역사의 大道에 충실해서 결국 워터게이트 대혼란직후 미국을 和合시킨 지혜를 높이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의장 이상의 자리를 결코 탐내본 일이 없었던 제럴드·포드는 73년 애그뉴부통령、74년 닉슨대통령의 사임으로 2백년 미국역사상 최초로 선거를 치르지 않고 대통령자리까지 밀려올라가 제38대 미국대통령을 지낸 미국정계의 元老이다.

그런 포드는 76년 11월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지미·카터에게패배、29개월에불과한 짧은백악관생활을청산、정상의 계단을 내려섰다.

거대한 권력의향수를 조금은 못버린채였으나 어느 보좌관의 말처럼 승패의 방법을 터득한 직업정치인으로 한발짝 물러앉았다는 평가를 듣고있다.

그는 정직하고 사람좋은 대통령이라는 평판을 모았다. 그때까지 30년에 걸친 정치생활에서 그는 아무도 敵으로 만들지 않았다.

대통령취하의 2백만 육·해·공군과 CIA및 FBI조직을 어떻게 이용해보거나 권력을 연장할생각은 추호도없이 투표권행사로 나타난 국민의심판을 조용히 따랐다.

포드의 반대자들은 그를 무색불투명한 인물、비전도없고 대통령감이 못된다고 비난도했지만 그의強點은 이런비난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는 재임 경험에비추어 『대통령은 오만해선 안된다. 대통령과 모든 고급관리들은 스스로 한平市民으로생각해야한다』고말했다.

포드가 카터후보에 고배를 마신것은 워터게이트사건의 주인공 닉슨을 사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됐지만 그자신은 닉슨의사면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말했다. 그에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까지도 포드의 정직한 인간성을찬양했다.

77년1월 임기만료 1주일을 앞두고 연두교서를발표한 포드를맞은 의회에서는 그에게 전례없이 7분간의 긴박수가 멈추질 않았다. 그는 연두교서낭독이 끝난후 만감이 교차、흘러내리는 눈물을 감추지 않았다. 【崔相鎬기자】

한국일보

특집판

적은 비용으로 알찬효과를 보는 한국안내광고란

LOEB
CASH "N" CARRY

※ 온타리오주에 10개소의 도매상(토론토에는 3개소)들이 당신의 비즈네스를 위해 성심성의껏 친절 봉사코 있읍니다.

매주 광고전단을 만들어 각 소매상에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원하시는분은 저희 도매상에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스페살품목의 광고전단을 즉시 보내드리겠읍니다.

★★★★ 당신의 M.Loeb Cash & Carry ★★★★

3 CONVENIENT TORONTO LOCATIONS

TORONTO
20 Orfus Road
Mgr. Dennis Schulz
782-8892

TORONTO
160 Evans Ave.
Mgr. Frank Arnone
255-6366

SCARBOROUGH
55 Bertrand Ave.
Mgr. Norm Carmichael
752-7292

LONDON
304 Adelaide St. S.
Mgr. Ernie Kormendi
686-7590

WINDSOR
2629 McDougall St.
Mgr. Gary Villemaire
969-9610

SARNIA
135 Water St.
Mgr. Keith Hood
337-2751

ST CATHERINES
189 Bunting Road
Mgr. John Neufeld
684-9581

HAMILTON
256 Gage St. S.
Mgr. Mark Hagan
549-7069

BRANTFORD
16 Morton Ave
Mgr. John Baker
759-4633

CHATHAM
80 William St. S.
Mgr. Peter Antuma
354-3000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인사의 말씀

금번 유웅복씨께서 온타리오 주정부 부동산 세일즈맨 면허를 획득하고, 본사에 근무하게 되었읍니다.

본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은 능력있고, 성실한 세일즈맨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자부하면서 교민사회 발전을 위하여 더욱 공여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에 세일즈맨의 증원을 인사드립니다.

황용현 배

유웅복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가 부동산 중개인 면허를 취득하여 황용현부동산주식회사에서 활동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본인은 건축공학 및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카나다에서 14년 동안 건축설계업에 종사해온 전문인으로서의 경력을 살려 보다 정확하고 성실하게 여러분의 안내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후원을 부탁드리오며 우선 지면을 통하여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즐거움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유웅복 배

B) 449-8644
R) 447-9395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M3B 1Z3
TEL: (416) 449-8644(B)
(416) 447-9395(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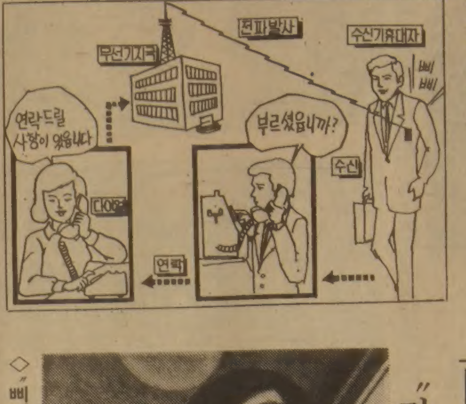
# 성냥갑보다 조금큰 "無線호출기"
# 서울거리에 "삐삐" 旋風

## 언제 어디있든 연결 電子생활시대의 "尖兵"

요즘 서울거리에 「삐삐-」소리가 서서히 일고있다. 「삐삐」는 무선호출기(Pager)약어. 성냥갑보다 조금큰 호출기에서 「삐삐-」하는 호출음이나오면 외출중이던 휴대자는 두리번거리며 전화기부터 찾는다. 본사에 직접연락을해야 하는것이다.

새해들어 시판되기 시작한 이「삐삐」는 20여일만에 대단한 위력을지닌 「어른의 장난감」임이 입증됐다. 분초를 다투는 일을 많은 대기업, 관공서, 언론기관등이 다투어 이용하기 시작한것.

본사에 앉아 호출하는 사람은 편리하겠지만 부름을당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벌써 「삐삐의 노예」가 돼가나-」탄식이 나올판이다. 조직생활에서 잠깐 탈출하는 해방감을 이「삐삐」는 앗아가 버렸다. 미래학자들은 서기 2천년께면 삐삐보다 휠씬 영악한 컴퓨터들이 나와 인간을 괴롭혀일 권리를 하게될 것이라고 예언까지 한다. 우리에게 말만 들었던 일렉트로닉스(電子)문화가 어느덧 우리생활속에 깊숙이 파들고있다.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이 삐삐를 시판하기 시작한것은 금년 1월4일. 20여일만에 2천6백15대가 팔렸다.

요즘도 신청서류가 하루 60~70건이 들어오고 있고 차례를 기다리는 것만도 8백여건이다. 삐삐가 직원들을 필요할때 24시간 언제든지 어느장소에있던 불러낼수있다는것이 확인되자 「너도 나도」신청을 하기 시작 한것이다.

삐삐의 가입비는 15만원이고 월 사용료는 1만2천원으로 서민이 쓰기에는 아직은 비싸다.

삐삐의 원리는 소형라디오와 비슷하다. 라디오가 전파를 받아 소리로 전환하는 대신 삐삐수신기는 송신탑에서 쏘는 전파를 디지틀신호로바꿔 기억한다는것이 차이점이다.

회사에 앉은 A부장이 밖에 나가있는 K군이 갖고있는 수신기의 번호를 전화로 다이얼링하며 무선호출고 乙支전화국의 컨트롤센터를 거쳐 서울시내 5개 송신탑으로 각각 전파로 발사된다.

K군의 허리에 매달린 수신기는 이전화를 받아 증폭 또는 변환시키면서 디지틀신호로 바꾼다음 ROM(Read Only Memory)이란 IC칩을 통해 이것을 읽는다.

이때 얻어는 신호가 자기 코드번호와 일치하면 닫혀있는 소리통의 문을 살짝열어 『삐삐』하고 소리를 내는것이다.

통신공사측은 2~3년후에는 수신기가「삐삐」소리만 내는것이 아니라 호출자의 전화번호나 호출요지를 음어화한 숫자를 표기하는 수준으로 발전할수 있을것으로 내다보고있다.

현재까지 수신기를 쓰고있는곳은 8백여군데.

60대로 단일 기관에서 가장 많은 수신기를 사용한 서울市는 국장과 구청장 간부의 비상호출용으로 쓰고있다.

그밖에 각언론기관에서 20~50대를 구입, 사용중이며 기업체 가운데는 韓國IBM이 36대, 一洋海運과 경산부영통이 30대 사들여 본격적인 활용에 들어갔다.

20여일의 짧은기간동 삐삐는 일화를 많이 남겼다. 金明淑양(23)은 니트웨어 수출업체의 경리과 직원.

며칠전 은행입금을위해 회사를 나설때 과장이 잡어주는 수신기를 핸드백에 넣고 버스를탔다.

버스나 도심을 지날때 핸드백속에서 갑자기 『삐삐』소리가 났다.

## 市販 20일…2천6백臺나

### "편리하지만 온종일 긴장케하는 怪物" 호소도

◇"삐삐" 울리자 공중전화로 — 거리를 걷다가 허리띠에 매단 삐삐가 울리자 근처 공중전화로 달려가 회사로 연락을하는 어느 젊은 세일즈맨의 모습.

순간 자기를향해 쏠리는 승객들의 눈초리가「기절」이라도 보듯 싸늘해서 소스라쳐 놀랐다.

회사에 돌아간 그녀는 과장에게 『울고싶더라』고 투정을했다.

어느회사 사장은 수신기를 처음 갖고나서 많은 친구들에게 자랑을하며 번호를 알으켜줬다가 친구들의 장난질 호출에 견디다못해 통신공사에 통사정, 번호변경을 받기도했다.

사건기자들이 모여있는 경찰기자실에는 삐삐1개가 울리면 모든기자들이「자기것」인가를 확인해야 하는바람에 사람을 하루종일 긴장케하는 「괴물」로 비추인다는호소.

회사간부들이 모두 모여있는데 어느간부의 삐삐가 울려 알고 보았더니 부인이 귀가가 늦다고 다이얼링을 한것임이 드러난 사례도있다.

한국IBM의 엔지니어 李용식씨(31)는 포키트에 손을넣고 걷다가 수신기스위치가 OFF(정지)로 돌아간바람에 회사의 호출을못받아다가 귀사후 부장의 꾸지람을 들은적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직격히 「편리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낳는다.

분초를 다투며 사건기사를 취재, 보도하는 언론기관에서 현장에있는기자를 부를때 삐삐만큼 위력있고 성능좋은 통신시설은 처음이었다.

한국IBM의 기술부장 吳忠勳씨(37)는 시내 곳곳에 우리가 설치해준 컴퓨터가 수시로 아프터서비스를 필요로하고있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한정된 기술진을 부르는데는 안성마춤이라면서 수신기 활용이후 고객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직은 가장 수요가 많을 「대기업」이 온인자중이다. 1, 2대씩 시험삼아 경영주가 사용하고 있는데 곧 그「편리성」을 알게될것같다.

교외의 골프장에서 삐삐소리가 나기시작한것을보면 「사장님」들이 수신기를 차고다니는 경우가 적지않았다. 전기통신공사는 세일즈맨이나 공사장의 현장요원등 하부구조에 많은수량이 지급되어 활용될때 국가경제에도 도움을줄것이라고 파악하고있다.

갑자기 나타난 이「삐삐音」은 직장인의 생활패턴을 바꿔가고도있다.

엄연한 사장을 모시고있는 비서 俱鎭八씨(42)는 작년까지만해도 언제 사장의부름이 있을세라 일요일에도 외출을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달초 수신기1대를 하사받은뒤 가족들을데리고 마음대로 외출을 즐긴다고했다. 물론 그때마다 그의 허리춤엔 대롱대롱 수신기가 달려있지만….

기발하게 쓰는사람도 생겼다. 모무역회사 중역은 이 삐삐를 開浦洞에 살고있는 여자친구에게 사주었다. 신호를 보내는 재미를 묘하게 살리는 케이스다.

음흉같은데선 극장안에 들어가보면 도처에서 삐삐소리가나 「소리공해」까지 됐다고한다. 공해로까지 치닫지 않았으면 하는게 삐삐를 먼저안 사람들의 소망이 돼가고있다. 【申鉉鉦기자】

# 頹廢이발소 1년停業

## 行政처분반복 根絶키로

### 이·미용사法개정 來1일부터 시행

이발소에서 퇴폐음란행위를하다가 적발되면 최고1년까지 영업정지처분을 과할수있는것을 골자로한 이미용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각의를 통과, 2월1일부터 시행된다.

29일 보사부에의하면 앞으로 모든 이용업소는 칸막이 커튼등 차단시설과 조명조절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하고 실내조명은 항상1백룩스이상을 유지하도록 돼있다.

또 퇴폐음란행위에 대한강력한 단속을 펴기위해 행정처분기준을 신설, 퇴폐 행위가 근절될때까지 행정처분을 반복할수있도록 규정했는데 1차로 적발되면 관할시도지사가 2~3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고 2차 적발때는 3~6개월, 3차때는 6개월~1년간 영업을 정지시킬수있게된다.

보사부는 강력한 단속을펴기전 15일간의 경과기간을두고 이기간내에 모든 퇴폐시설을 철거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퇴폐이발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운데다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어 행정처분을 받은 업주들이소송을 제기, 오히려 승소하는 경우까지 생겼었다.

## 無免許 치과기공사에 "잘봐주겠다" 돈받은警官 셋구속

【釜山】부산지검釜山지청은 28일 무면허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들로부터 법을 위반한 사실을 봐준다는조건으로 3년간에걸쳐 뇌물을받은 釜山경찰서 형사3계반장 신용태경사(40)와 김병욱 순경(30), 釜山시청 의약계장 한태근씨(47)등 3명을 직무유기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신씨는 지난79년4월중순께 치과기공사인 윤씨가 무면허치과의사들로부터 의치등을주문받아 만들어주고있다는 사실을 알고 잘봐준다는 조건으로 10여차례에걸쳐 모두 1백만원을, 김순경은 43만원을, 의약계장 한씨는 83만원을 각각받았다는것. 【龍】

## 內緣의妻살해

【東海】29일 새벽2시30분께 강원東海市墨湖洞4통3반 김태선씨(56·어부)가 23년전부터 동거중인 김동순씨(48)를 시비끝에 몽둥이로 온몸을마구때려 숨지게했다. 【龍】

## 국교생 1명溺死 소류지 얼음깨져

【井州】28일 낮12시30분께 전북井邑郡所聲面龍溪里 신덕마을앞 정일소류지에서 얼음지치던 이마을 문병규씨(50)의 막내아들 홍주군(12·정일국교6년)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빠져 숨졌다. 【龍】

## 고속버스 굴러 승객9명 부상

【金泉】29일상오10시께 경북金陵郡禦侮面東佐2洞앞국도에서 尙州를 떠나 서울로 가던 천일고속버스소속 경남6바1014호 (운전사 조병제·41)가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禦侮面銀基2洞 김태모군(19)을 치고 도로밑쪽 3m 논바닥으로 굴러 승객 황숙희씨(37·尙州郡中東面肝上里803)등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龍】

## 오토바이 住宅받아 1명죽고 1명중상

【全州】28일하오3시10분께 전북 益山郡礪山面壺山里 신기부락앞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전북1다9743호 오토바이(운전사 손치관·25·서울道峰區月溪아파트29동310호)가 길옆 김효신씨(36)집을 들이받아 운전사 손씨가 그자리에서 숨지고 오토바이 뒤에타고 있던 신상화씨(34·益山郡礪山面壺山里1 2 3)가 중상을 입었다. 【龍】

## 政府보리 千7백가마 훔쳐 일당 2명검거

【蔚山·天安】경남蔚山남부경찰서와 충남 天安경찰서는 29일 8톤짜리 대형트럭을동원, 정부미도정공장창고에보관중인 정부보리 1천7백여가마(싯가2천5백만원)를 빼내 전국에팔아온 백천정비소(경남蔚州郡凡西面屈火里) 상무 이용덕씨(41)와 운반책인 충남7아3545호 8톤트럭 운전사 이종식씨(24)등 12명을 특수절도혐의로 각각 검거했다.

경찰에의하면 이들은 지난 26일하오4시 충남7아4785호 8톤트럭등 5대를동원, 정부미 도정공장인 백천정미소창고에 보관중인 보리 9백가마를 훔쳐간것을 비롯, 지난28일밤 10시께 충남7아3545호 8톤트럭등 4대의 트럭을 이용해 이창고에 보관중인 8백50가마의 보리를훔쳐내 충남天安으로 빼돌리다 적발됐다는것. 【龍】

## 密輸우범자 6백명名單 작성
## 휴대품 철저 검사 金浦세관

金浦세관은 29일 金浦공항을 이용하는 밀수우범자명단을 새로이 작성, 이들을 상대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철저히하기로 했다.

세관은 그동안 金浦공항에서 적발된 관세범 6만5천명중 우범자 6백명의 명단을 작성한것인데 최근1년동안 입국횟수 12회 이상여행자중 1회이상 과다하게 물품을 휴대했거나 1년에 6회이상 입국하면서 2회이상 과다반입자로 적발된 4백31명의 이름도 추가했다.

세관은 또 1년에 12회이상입국한사람중 목적이 불명확했던 내외국인 1천여명의 명단도 비치해 놓을예정이다. 세관은 앞으로 이들 우범자에대해서는 입출국시 휴대품 반입상태를 기록하고일반여행자와분리, 지정검사대에서 정밀검사를받도록 했으며 필요하면 촉수검색도 병행키로했다. 세관이 작성한 밀수우범자는 내국인이 1백48명이고외국인으로는 중국인 1백3명, 홍콩인 1백2명, 말레지아인66명, 기타12명등이다.

## 法院 일반직들 74명 人事단행

대법원은 29일 이사관1명을 포함, 31명을 승진시키고 부이사관1명과 서기관1명등 36명을전보시키는등 법원일반직 74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2월1일자로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또서기관5명, 사무관2명등 7명이 퇴직했다.

법원일반직에 대한 이번대폭적인 인사는 올해들어 대법원장비서관의 독직사건이 드러나는등 법원내일반직의 근무기강이 해이돼이를쇄신하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

## 誣告·진정등 40회 前중학교장 구속

【大邱】대구지검특수부 朱光逸부장검사는 29일 전경북도교육감 李鍾律씨(58·현 경북고교교장)가 국고금 2백만원을 횡령했다는 허위고소장을 내고 40회에 걸쳐 각계에 진정·고소·탄원서등을 낸경북 漆谷郡 전成一중학교장 宋泰出씨(50·大邱市中區南山洞)를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宋씨는 지난해10월9일 大邱中部경찰서에 전 경북도교육감 李씨가 교육감 재직때인 지난79년 成一중학교에 지급되는국고금2백원을 횡령 착복했다는 허위사실의 고소장을 냈다는것.

宋씨는 또 지난 78년5월31일부터 82년12월7일까지 33회에 걸쳐 경북도 교육위원회에 각종의 진정서를 낸것을 비롯해 大邱 中部경찰서에 학위의 비리등 갖은내용의 진정서와 고소장등을 7차례나 냈다. 【龍】

## 佛國寺 공설 商街 慶州 民營化하기로

【慶州】경북慶州市는 지난72년 불국사지구 정화공사에따라 조성한 불국사공설상가를 민영화하기로 했다.

28일 慶州市에 따르면 대지 4천6백62평, 건평1천5백10평(점포99동)의 불국사공설상가는 그동안 입주업체끼리의 분쟁으로 시장의기능이 날로 저하되고있어 일반에게 매각처분이 불가피하게됐다는 것이다.

慶州市는 올해안에 공설상가를 20억에 매각하여 폭샘지구정화사업에 환원 투자키로 했다. 【龍】

## 5行뉴스

◆언청이뻥兒환자무료시술 국립의료원은 29일 오는4월부터 영세민자녀중 언청이 영아환자 1백20명을 무료시술해주기로했다.

## 野山서주운 폭발물 터져 國校生등3명慘變

【抱川】28일 하오 4시30분께 경기抱川郡二東面廬谷3里야산에서 종류를 알수없는 폭발물을 주워놓던 이마을김양선군(16·二東中3년)과 김영군(13·廬谷국교6년) 최성수군(10·廬谷국교3년)등 3명이 폭발물이 터지는바람에모두숨졌다. 【龍】

## 내일부터 "쌀쌀"
### 오늘 全國에 비 또는 눈

한동안 겨울답지않게 포근하던 날씨가 기압골이 통과하는 30일부터 정상적인겨울추위로 되돌아올것같다.

중앙기상대는 大寒추위이후 24일부터 예년보다 6도가량높은 포근한 날씨가 계속됐으나 주말인29일부터 기압골이 통과, 30일은 전국이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기상대는 이날 기온은 서울이 영하2도가량으로 포근한 편이겠으나 기압골이 비켜가는 31일부터는 한랭한고기압이 확장돼 최저영하5도가량으로 쌀쌀해지겠다고 내다보고 특별한 立春추위는 오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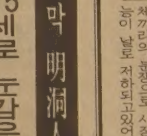
## 마지막 明洞人
## 75세로 눈감은 作家 李鳳九씨

### 22歲로 文壇에…평생을 "明洞 노래"

연극은 막이 내리는것으로 끝나지않는다. 주연배우가 마지막 인사를 해야 끝이다. 그런점에서 「明洞時代」는 완전히 끝났다. 70년대에 이미 막이 내리더니 이제 주연배우도 작별을 고했다.

明洞의 터줏대감으로 불리던 작가 李鳳九씨 (사진)가 29일상오 11시 서울道峰區水逾4洞 568의4 자택에서 눈을 감았다. 향년75세.

「명동백작」「명동신사」「명동시장」「명동작가」에「명동호주」라는「명동」시리즈의 별명들이 말해주듯 그는 철저한 명동인이였다. 그것은 우리나라 현대문화예술의 산증인이라는 말과도 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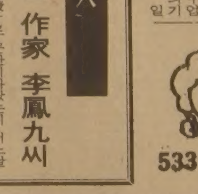
개화기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온 일제는 오늘날의 明洞과 忠武路일대를 중점적으로 개발, 明洞은 좋건 싫건 우리 新文化의 요람이되었다.

李箱이 깜마른 얼굴에 백단화를 신고 거닐다 깡패와 실랑이를 벌이던곳도 이곳이었고 田惠麟이 술에 취해「…흙이 괴로와 지겠는 어느 일요일에 죽어버리자…」는 낙서같은 시를 끄적거린 술집「銀星」도 이곳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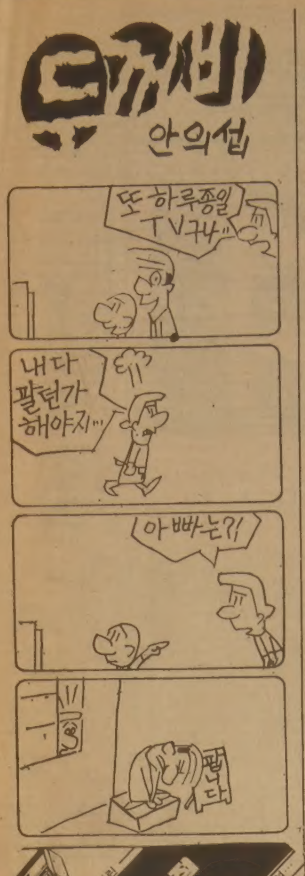
李씨가 明洞과 인연을 맺은것은 1938년 22살의 청년시절부터. 경기도安城출신인 李씨는 34년단편 「出發」로 문단에나왔는데 어느날 동향친구이자 시인인 吳章煥과 「에리자」다방에 들어간것이 인연이되었다. 그후 시인 李時雨를 중심으로한「34文學」동인들을 만나면서 明洞은 그의제2의고향이됐다.

그래서 대부분 明洞에 관한 작품들만 발표했다. 「明洞20년」「明洞」「어디서 무엇이되어 다시만나랴」에서 마지막 저술인「明洞에 비내리다」에 이르기까지.

74년 그는 고혈압으로 손발에 마비증상이 왔다. 그 무렵은 문화예술의 산실로서의 明洞이 마비를 일으키기 시작할때였다. 70년대에 들어오면서 明洞의 주역들은 문화예술인들보다 증권상인들로 바뀌고있었다.



李씨는 곧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明洞時代」는 다시 오지않았다. 이따금 明洞을 들러봐도「人傑」은 물론「山川」까지 바뀌어 실망만을 안고 돌아왔다. 明洞을 가장 즐겼고 아파했던 그는 明洞의 재기를 얼마나 바라며 눈을 감았을까…. 발인은 31일상오9시, 장지는 安城선영 (☎9843) 【梁平기자】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 가요, 문학, 영화, 진실…
454 BLOOR ST. W.
536-1692

533-2361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SPECIAL SALE
특별할인
TELEFUNKEN
BRAUN
아카데미 TV. STEREO
EAST
MORNINGSID MALL
256 MORNINGSIDE AV. SCAR.
KINGSTON RD. & MORNINGSIDE
☎ 282-2820
WEST
FINCHWEST MALL
3467 WESTON RD. WESTON.
WESTON & FINCH
☎ 745-5555

# 한국민족주의 原點을 찾는다

## 現代史의 現場 ⑬

題字 原谷 金基昇

## 史上최대의 民衆戰線

# 東學革命운동

동학농민군의 첫大捷地 黃土峴。전북井邑郡德川面下鶴里에 있는 해발45m의 나지막한 언덕이다。예부터 全州~泰仁~梨坪~古阜를 잇는 길목이어서 木浦에서 서울로 걸어올라가자면 어김없이 황토고개를 쉬엄쉬엄 넘게돼있다。

황토고개는 古阜땅의 호남명산 斗升山(해발4백43m)의 산자락에 자리잡고있지만 동학농민봉기의 지원지인 梨坪과 白山 들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략적요충지이다。

井州市에서 북쪽으로 梨坪을 향해 8㎞거리에 황토현이 위치하고 다시 황토현에서 梨坪면사무소가있는 말목장터까지 15㎞。말목장터에서 全琫準의 옛집 鳥巢부락까지는 3㎞。황토현에 올라서면 이들 역사의 현장들이 한손에 잡힐듯이 위치해있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만석보에서 선단 강물처럼 터진 농민들의 봉기는 古阜군수 趙秉甲의 죄를 다스리고 長興부사 李容泰를 안핵사(按覈使·안무사의 일종으로 지방에 무슨일이 났을때 이를 조사하여 알리는 조선조 임시관직)로 보내는선으로 일단락되는듯했다。안핵사는 민폐를 바로 잡고 민란의 두목외에는 후계만으로돌려보내 생업에 안정토록 하여 조정의 너그러운 뜻을 백성들에게 보이도록 돼있었다。

古阜군수로 새로 부임한朴源明은 봉기를 일으킨 狀頭들과 만나 지금까지의 잘못된 정치를 시정키로 약속하고 농민들을 해산하게 되었던것이다。

이에 반하여 군수보다 며칠늦게 역졸 8백명을 거느리고 古阜에 들이닥친 안핵사 李容泰는 민란의주모자를 찾아내라고 신임군수를 위협한뒤 역졸을군내에풀어 마을을 뒤지고 다녔다。그리하여 백성들을 마구 때린다음 고기꿰듯 엮어갔다고 崔永年의 東徒問辨은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있다。

한번은 茂長 禪雲寺에서 안핵사역졸들이 아무나 붙들고 동학군이라 트집잡아 압송하려다 그곳 동학도인들의 손에걸려 매를맞고 달아난사건이 있었다。이때부터 각읍 사령배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동학군 잡는일이 그악스러워졌고 동학군들도 자연히 목숨을걸고 반격을 취하지않을 수 없게되었다。

당시 사정으로 보아서는 동학교주 崔時亨이 비폭력 무저항을 표방하고있었기 때문에 除暴救民의 깃발을내세우고 8도강산을 흔들어볼 엄두까지 갖지는 않았던것같다。안핵사가 봉기농민들을 무조건 동학군으로몰아 이름을 적어 잡아가두는가하면 그처자를붙잡아 살육을 일삼음으로써 재차 봉기하지않을 수없이된 것이다。

갑오동학혁명의 영도인물은 물론 全琫準이지만 泰仁접주 金開南、崔景善과 茂長접주 孫華仲의 거사 결심을 얻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全琫準과 金開南과는 山外面東谷里 지금실마을의 친구였으며 崔景善역시 동향인으로 지기지간이었다。

그러나 당시 전라도에서는 동학접주로 명성이높은 孫華仲이 全琫準의봉기제의에 시기상조를내세워 선뜻 응하려 하지않았다가 마침내 도인들의 궐기호소에 전라도 각고을에 사발통문을보내어 白山(현 扶安郡白山面龍溪里)으로 모이게하니 이것이 동학의 3월봉기였다。

1894년 3월21일 교주 崔時亨의 탄신일을기하여 白山에집결한 주력부대는 茂長 靈光 高敞 興德 井邑 古阜 泰仁 扶安 金溝 金堤등에서 몰려온 동학농민들로 그수는 4천명을 헤아렸다고한다。

『우리가 義를 들어 이에 이름은 그 본의가 단연 다른데 있는것이 아니고 창생을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위에 두자는데 있다。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는데 있다。

양반과 부호밑에서 고통을 받고있는민중들과方伯守令밑에서 굴욕을 당하고있는小吏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자다。조금도 주저치말고 이시각으로 일어서라。만일 기회를 잃으면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保國安民의 기치를 뚜렷이 표방하고 나온 동학군들이사방에 보낸 격문내용이다。

「앉으면 竹山 서면 白山」이라는 말은 이때 동학군의 白山봉기를 두고 생긴 말이었다。당시 죽창을 든 농민들이 하도 많아 이들이 앉으면 죽창만 보이기 때문에 앉으면 竹山이요 백의의 의병들이 山을 이루었다고해서 서면 白山이라고 했다던가。

현재 6천2백여평이 지방기념물로 지정돼있는 白山城址는 북문과 남문터 그리고 성곽 標址등이 역사의 현장으로 남아있다。

## 保國安民·斥倭로 正氣높여
## 政治意識심고 近代化 촉진

白山에 집결한 동학농민군은 古阜 泰仁 金溝를거쳐 全州로진격할 계획이었으나 전라감영군 1만여명이 古阜를 향해 출동해온다는 소식을듣고 道橋山에 진을 쳤다。전라감영군이 바짝 뒤를 좇으니 동학군은 斗升山에서 동북으로 뻗어내린 柿木里 고지인 사시봉으로 숨어들었다。관군이 이곳황토현에 이르러 머물게된것이 1894년 4월6일 밤이었다。

지형상으로 보면 동학농민군 진지는 남쪽에 위치하여 높은 곳이요 황토현은 이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양진의 거리는 1.5㎞가량。바야흐로 전운이 斗升山을 감돌고 있었다。

동학농민군은 보나마나 밤을 도와 관군측이 야습해올 것을 예측했다。병력을 나누어 잠복시킨다음 본진에는허수아비를 만들어 횃불으로 위장해 놓았다。아니나 다를까。동학군을 오합지졸로 과소평가한 관군은 거침없이 본진을 향해 쳐들어왔다。

한참을 사시봉 깊숙이 들어간 후에야 관군은 위계에 빠진것을 알았다。농군들이 전후좌우에서 치고 달려들어 혼전이 벌어졌다。당시 관지리에 어두운데다 한밤중 지척을 분간하지 못한관군들은 대적을 못하고 달아나고 말았다。동학농민군 한부대는 황토현의 본진을 기습하니 營官 李璟鎬를 비롯한 많은 관군이 전사했다。

황토현 싸움은 당초 전라감영군이 白山으로 출동하여 동학군의 행동을 견제하면서 京軍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기로 됐던것인데 金達觀과 李在寅이 서로 공을 세우려는 야심에서 저지른 것으로 사가들은 지적하고있다。

甲午東學革命史의 저자 崔玄植씨는 훈련된 관군이 그야말로 바지저고리격인 농군에게 격파를 당한 사실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당시 관군은 營兵7백명과 토병5백60명에 전라도내의 보부상 1천여명이 출동되었던 것이다。

황토현에서 승리를 거둔 동학농민군은 파죽지세로 하루만에 井邑 興德 茂長을빼앗고 茂長에서 사흘머문뒤 다시 咸平 長城으로 진주하였으니 그 위력을 짐작할만하다。

이 황토현전적지에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세워진것이 63년10월이고 당초에는 지방유형기념물이었다가 81년12월부터는 사적295호로 지정돼 경내 3만3천4백여평을 말끔히 단장해놓았다。

기념탑의 높은 탑신에는 동학농민군들이 기치를 내세웠던 除暴救民 保國安民이라고 새겨져 기념탑 외편에는 사학자 金庠基박사가 지은 銘文을 오른편에는 농민군의 봉기모습이 화강암에 부조돼 있다。

『除暴救民 保國安民과 斥倭를 기치로 동학교문의 대혁명가 全琫準선생의 영도아래에서 일어난 甲午동학혁명은 우리민족의 진로에 커다란 광명을 비춰주었다。全琫準선생은 동학의 조직망을통하여 농민대중을 안아들여우리역사상에 처음보는 대규모의 민중전선을 이룩하고 爲國爲民의 뚜렷한 지도이념밑에서 줄기차게 싸웠던 것이니 그 의의와 영향은 진실로 지대한 바가 있다。

이혁명은 우리 농민대중에게 정치적의식을 깨우쳐 주었으며 고루하고 불합리한봉건체제의 낡은 권위를 뒤흔들어 국민생활의 근대화를촉진시켰고 제국주의 일본의침략에 민족전선으로서 항전하여 우리의 민족정기를 현양시켜 뒷날 3·1운동의 선구를 이루었다。

이 갑오동학혁명의 거룩한 업적과 숭고한 정신을 그뉘라서 추앙치 아니하며 찬양치 아니하랴。갑오동학혁명이야말로 길이 세계역사위에빛날 것이다』

◇현재 井邑郡梨坪面사무소가 자리잡고있는 말목장터。이곳이 동학혁명의 진원지다。【李基龍기자찍음】

◇甲午東學革命史의 저자이며 향토사가인 崔玄植씨가 황토현 기념탑아래서 동학농민군의 봉기얘기를 들려주고 있다。

## 黃土峴 첫大捷地엔 지금도 함성 들리는듯…

기념탑명문을 읽고 뒤로돌아가보니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간다」는 녹두장군의 동요가 화강암 뒷면에 새겨져있다。

全琫準의 천추유한이 담긴 녹두동요 옆에 또다른 형태의 동요가 눈길을끈다。

『가보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병신되면 못가보리』

이짧은 동요귀절은 녹두새를 갑오새로 변용했고 을밋을밋 우물거리다가는 서울진격은 망치게된다는 풍자를담고있다。

全琫準이 甲午년(1894)을 넘기기 전에 빨리 서울로 진격해야지 乙未년(1895)까지 우물거리다가는 丙申년(1896년)에 이르러서는 아주 그르치고 만다 는 동요인것이다。

동학농민군은茂長에서사흘동안 전열을 정비하는동안起包大義를 밝히는 동학포고문을 세상에 발표했다。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귀하다고 하는것은 人倫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君臣父子는 인륜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이다。임금이 어질고 신하가 곧으며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들이 효도한 연후에야 이에 집과 나라에 無疆의 복이 미칠수 있는것이다…』로 시작된 이포고문은 구구절절 위정자의 무능과 부패를 통박하였을뿐 아니라 人乃天사상을 강조한데서 그 성격이 두드러진다고 崔씨는 밝히고있다。

동학농민군의 첫전승지 황토현은 키넘게 자란 솔밭으로 둘러싸여 있다。그아래 下鶴里마을의 매밭들타리나 겨울보리밭도 보인다。90년전과 별로 다르지않은 정경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감회가 새롭다。

【井邑·高敞=李忠雨기자】

---

# 美 核航母 엔터프라이즈號
# 日 사세보港 基地化

### 日紙보도、나까소네 4海峽봉쇄와 관련

## 美·日、수시寄港도 합의

◇백악관서 談笑하는 레이건정부「3 總帥」

레이건 美대통령이 28일 유럽및 아시아지역 순방에 각각나서는 부시 부통령④및 슐츠국무장관⑥과 백악관집무실에서 회담한뒤 버지니아근처에서 열리는 한회의에 참석차 승용차에 오르기전 잠시 담소를 나누고있다。【워싱턴28日AP連=聯合】

【東京=聯合】 미국은 일본규우슈(九州)서북쪽의 사세보(佐世保)항을 미원자력항모 엔터프라이즈號(7만5천7백톤)의 對蘇 전진기지로 삼으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나까소네수상의 4해협봉쇄론과도 깊은 관련이있는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일본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9일 정부소식통의 말을 인용、오는 3월21일 엔터프라이즈號가 韓美합동「팀스피리트83」훈련도중 15년만에 처음으로 사세보항에 입항하는것은 이같은 목적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일본정부가 이미 이같은 미국측의향에대해 엔터프라이즈호의 사세보 수시기항에 합의했다고밝혔다。

사세보항은 지금까지 보급기능에 중점이 두어져왔으나 지난80년이래 미7함대 항모 미드웨이호등이 수시로 기항해오고있다。

요미우리는 미국이 소련태평양함대의 증강에 대처하기 위해 동해·대한해협등 한반도주변과 태평양방면의 작전을 중시한다는 입장에서 사세보를 엔터프라이즈호및 앞으로 7함대배치가 예정된원자력항모 칼빈손호의 전진기지로 삼으려하고 있는것같다고 지적했다。

## 日經濟사절단 訪蘇
### 안드로포프와 회담

【東京OANA聯=聯合】 나가노·시게오(永野重雄) 일본상공회의소회장을 단장으로 한 대규모 일본경제사절단이 오는 2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소련을 방문、유리·안드로포프 공산당서기장을 비롯한 소련지도자들과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日외무성의 한고위관리는 28일 나가노회장이 약 1백60명의 경제계지도자들로 구성된 사절단을 이끌고 모스크바를 방문、안드로포프 서기장과 티호노프수상등 소련지도자들과 양국통상 증진방안등을 집중논의할것이라고 말했다。

## 日어부 蘇위해 間諜행위
### 북방 4개島嶼주변 入漁權댓가로

【東京AP=聯合】 일본어부들이 전후 소련이 점령、日·蘇양국간에 영유권분쟁의 대상이 되고있는 일본북방 4개도서주변해역에서 입어권을 얻는 댓가로 소련을위해 간첩행위를 하고있으며 이러한 일본어부들이 날로증가하고 있다고 일본의 공동통신이 보도했다。

일본경찰도 이같은 일본어부들이 탄「간첩어선」약40척이 현재 일본북부北海道주변수역에서 조업중이라고 말했다。

共同통신은 소련이 일본자위대병력의 북해도지역 배치현황은 물론 일본극우파운동의 활동상및 일본내에 벌어지고있는 북방4개도서반환운동등에 관한 정보를얻는데 관심을 갖고있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한어부가『소련측에 나포되지않은채 이수역에들어가 어로활동을 할수있는방법을 오래도록 궁리한끝에 그들을위해 간첩행위를하는것 뿐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한것으로 전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

## 길

### 良心의 승리

◇韓景職◇

불란서의문호 빅토르·위고의 레미제라블이란 소설을 읽은 이들이 적지않을줄 안다。그 주인공 장발장은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여러가지 사소한일로 법을 범한일에 유명한 전과자가 되었다。그러나 그는 교묘히 법망을 벗어나 이름을바꾸고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가 마침내 어떤 지방도시에서 시장까지되어 많은 시민의 존경을 받으며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그런데 하루는 신문을보니 어떤 노인이 그 유명한 전과자 장발장으로 판명되어 며칠후 법원에서 공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그 뉴스를 읽고 그는 그날저녁 밤새도록 자지못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그노인이 재판을 받는 법정에 담대히 나타나 자기가 실상 장발장이라고 고백했다。

이이야기는 한마디로 양심의승리를 의미한다。인간이 비록 양심의 음성을 무시하고 여러가지로 죄를범하나、또한 때로는 양심의 명령에 순종하여 수치 명예 손상 재산피해등을 무릅쓰고 담대히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도한다。인간의존엄성이 여기에 있다。인간이 과연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가。아무리 어렵더라도 양심의 음성에 순복하라。그리하여 그대의 삶에서 양심이 승리케하라。양심의 음성이 곧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라。

---

# 張吉山 <1653>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13)

이어서 말미마당이 벌어졌다。계화는 어른거리는 관솔불빛아래서 이리저리 거닐며 사설을 읊조렸다。아조 아무대왕께옵서 혼인하여 아들을 보려하였으나 줄줄이 딸만일곱을 낳았다。참다못하여 일곱째 딸을 서해 용왕께 진상이나 보내리라 하고는 옥함을 짜게 하였다。

『대왕마마 하신 말씀、버려도 버릴 것이요、던져도 던질것이니 바리공주라 지으시고、금거북 금자물쇠 흑거북 흑자물쇠 채워내어 계하에 신하불러들여 어주삼배 먹인후에、탑전을안고 돌쳐서 아미타불 염불이오 대세지 고개넘어서니 앞으로는 황천강수요 뒤로는 유사강이요、애옥 여울 피바다에 한번던지니 용솟음하시고、두번던지나 재솟음이요、세번 던질적에 하늘아는 자손이라 금거북이 받아지고 이렇게 될즈음、석가세존이 삼천제자 거느리시고 사해도 구경하고 인간제도 하옵시려 나옵시다가…』

옥함을 보고는 돌배를 저어서 건져다가 황천에 갖다놓았다。옥함에 아무대왕 칠공주라 새겨있어 여자라 제자도 못삼고 공덕할미와 공덕할아비에게 분부하여 키우라 하였다。세월이 흘러 아버지 대왕이 점을 쳐보니 그들부부가 아무날 아무시에 죽을 패라 바리공주를 찾아야 산다고 하였다。왕이 근심에 빠져 있으려니 한 동자가 찾아와 바리공주를 버린 죄로 대왕 부부가 죽게되어 삼신산 불사약과 봉래방장 무장승의 약수를 얻어서 마셔야 살 수 있다고 하였다。대왕 부부 받은 신하가 천신만고 끝에 겨우 바리공주를 찾아가 아뢰었다。바리공주는 부모를 구하려고 미륵님의 약수를 구하러 나섰다。무쇠주령을 한번 휘둘러 짚으면 천리요、두번 짚으면 이천리를 가는 것이었다。삼천리를 가서 석가세존을 만나 길을 물으니 가르쳐 주었다。칼산지옥 불산지옥 독사지옥 한빙지옥 구렁지옥 배암지옥 물지옥 흔암지옥 무간팔만사천 지옥을 건너고、무지개를 타고 건너니 무장승이 있었다。무장승은 키가 하늘에 닿고、눈은 등잔 같으며、얼굴은 쟁반 같고、발은 석자 세치였다。바리공주가 약수를 원하니 무장승은 길값 약값 대신 함께 살자하여 구년 동안에 아들 칠형제를 낳아 주고 약수를 얻어냈다。바리공주는 칠형제를 데리고 약수를 병에 담아 집으로 돌아오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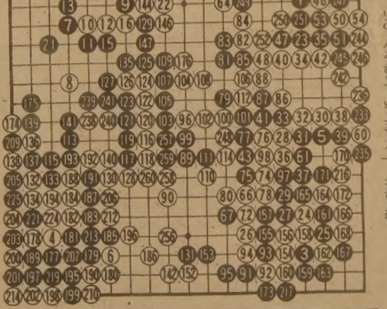
『피여울 피바다에 줄줄이 떠오는 배에 염불 송짜하고 아미타불 공부하여 연화 사방에 피어있고 거북이 받들고 청룡 황룡 끌고 오는 배는 어떤 배인고、그 배에 오는 망제는 세상있을적에 다리 노와 만인 공덕 원을 지어 행인 공덕、절을 지어 중생 공덕 옷을 벗어 시주하고、배고픈 사람 밥을 주어 부어 공덕、이단에 새남 받고 삼단에 법식 받아、선왕제사 십구제 백일제 바다 극락세계 시왕세계 왕생천도하여 가는 배로구나、또 그 뒤에 오는 배는 활 든 이 총 든 이 창 든 이 머리 풀어 산발하고 의복도 벗고 울고 결박하고 삭기 충천하고』

---

## 名人戰
### 제14기 挑戰者決定리그

第8局 總譜 260手完 (각5시간·덤5집반)

白(6段)徐能旭<2敗>
黑(7段)徐奉洙<2勝>



【黑不計勝】徐7단은 이번期에도 호조의출발로 연2승、張秀英6단과 함께 선두에 나섰다。이런 기세라면 또다시 도전권을 따리라 예상되지만 아직도 4국이나 남아있으니 좀더 지켜보아야 어느정도 예측을 할수있을 것같다。

한편 徐6단은 기대를 어기고 연2패。만약 1패만 더한다면 지난期처럼 시드組에서 탈락할지 모른다。

그것은 그렇고 이바둑은 白이 때이른 고전에 자제력을 잃더니 조급한강수를 연발하며 승부를 걸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패했다。

포석초기에 白22가 당연한듯하면서도 너무 미지근했고 더군다나 우하귀와 우변에서의 전투가 불만스러운 결과였다。말하자면 이일련의 작전실패가 패배의 遠因이 되었고 여기서白44로 우상귀에 침입한수가 결정적인 패인이었다。

### 徐7段도 先頭에

이결과 黑집만 키워주고 패의멋가도 별것이 못되었으며 중앙작전에서 계속 비상수단을 띄웠지만 黑103이하의 강타와 117이하의 기발한 착상에 말려 실패。한마디로 黑의 名局이라고 한다。

62…56。65…59。68…56。71…59。169…162。208…200。211…138。215…203。218…200。220…202。222…198。223…203。226…200。227…214。222…220。229…203。232…220。234…198。237…60。

【一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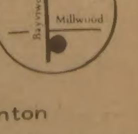
---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실비아·뵌

# 하늘 높은줄 모르는 프로野球스타 株價

# 입 벌렸다하면 億臺/흥정

프로야구선수들의 계약연봉(年俸)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있다.

프로야구 창설과함께 우수선수의 희소가치와 각구단의 승리욕이 상승효과를 일으켜 스타로 자처하는 프로야구선수들의 계약금·연봉이 1억원대를 오르내리고있다.

현재 프로야구단과 계약을 체결한 최고액선수는 三美 슈퍼스타즈의 在日同胞투수 張明夫. 치욕적인 최하위탈피를위해 三美는 張明夫에게 계약금 4천만원, 연봉 4천만원 외에 주택제공을 약속, 모두 1억원이상의 대우를 보장하고있다.

국내선수로서는 우승팀 OB베어스의 에이스 朴哲淳이 연봉만 3천2백만원, MBC靑龍의 金在博과 李海昌, 三星 라이온즈의 金始眞·張孝祚가 연봉 2천4백만원의 특급대우로 발표됐으나 실제연간수입은 4천만원대라는것이 구단관계자들의 추산이다.

시즌·오픈을 2개월 앞둔 현재까지 崔東原은 롯데자이언츠와 7천5백만원~1억원의 계약흥정을 계속하고있다.

프로야구 창설을 준비하며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선수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은퇴후의 생활을 보장해주기위해 최고(특급) 계약금 2천만원·연봉2천4백만원, 최저(F급)계약금2백만원·연봉6백만원으로 상·하한계를 그어 놓았다.

각 구단들은 절대선수층의 부족으로 실업야구에서도 도태되었던 선수들을 불러들이며 팀당 평균계약금 3억5천만원, 연봉 3억5천만원을 투자했다.

첫시즌을 마친후 패권다툼에 더욱 열이 오른 구단들은 스스로 정한 계약금·연봉 상한선을 깨뜨리고 억대에 이르는 스카웃공세를 펼치고있다.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후 유수한 기업에 입사한 일반회사원의 초임이 대략 30만원 정도다. 5~7년경력의 과장급은 월봉50만원, 10년이상의 경력을 쌓은 부장급은 70~80만원 가량이며 이사급이 1백20만원선이다.

일반기업사원들의 월급을 프로야구선수들의 기준으로 나눈다면 과장급이 최하위인 F급에서 D급, 부장급이 C급, 이사가돼도 B급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프로야구선수의 연봉을 일반사원의 임금체계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일반사원들이 30년이상 큰 과실이 없는한 안정된 직장생활을 할수있는데 비해 프로야구선수들은 활동기간이 길어야 15년안팎이다. 또한 치열한 운동수명단축의 위험도 높다.

그러나 이같은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동선수들의 지나치게 높은 임금수준이 사회적으로 결코 바람직한것만은 아니라는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30년 경력을 쌓고 월봉 1백만원을 받아 모범적인 사원으로서 사회활동을 끝낸후의 보상은 3천~5천만원정도의 퇴직금이다. 프로야구 스타 1명이 한해에 벌어들이는 1억원이란 돈은 일반사회인들에겐 꿈같은액수다.

특수기능을 가진 프로야구선수 대우에는 적절한배려가 따라야하지만 선수개개인이 가진 능력에 알맞고 사회적으로 납득할수있는 임금체계가 확립되어야 할것이다.

팬들에게 즐거움을 줘야할 스포츠스타들이 자칫 인플레의 기수로서 이질감을 준다는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창단첫해에 수억의 적자를 기록한 각구단은 무모한 출혈경쟁을 지양해야할것이며, 한국야구위원회(KBO)도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중론이다.

## 選手村 떠나

### 여자핸드볼 골게터 尹秉順 부상

국가대표 여자핸드볼팀의 골게터인 尹秉順(20·仁川시청)이 허리부상으로 泰陵選手村을 퇴촌한다.

지난 17일부터 泰陵선수촌에서 강화훈련을 받던 尹秉順은 고교때 수술받은 허리디스크가 최근 재발, 휴식을 취해야한다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당분간 대표팀훈련에서 나가게 된것이다.

## 코너즈 '최우수選手' 영예

### 월드테니스誌선정, 매켄로 3位

【뉴욕聯合=특】 윔블던대회와 美오픈선수권대회 우승자인 美國의 지미·코너즈가 월드테니스誌에 의해 82년도 최우수 남자테니스선수로 선정됐다고 28일 발표했다.

코너즈는 지난해 윔블던, 美오픈대회등 7개 테니스대회에서 우승, 최우수선수의 영예를 차지했다.

2위는 1백6승9패를 기록한 체코의 이반·렌들이며 81년도 최우수선수였던 존·매켄로는 3위에 그쳤다.

## 배구協會 임시총회

### 집행부 會長에 일임

대한배구협회는 2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신집행부 구성을 위한 전형위원 선임권을 趙錫來회장에게 위임, 趙회장은 이를 전형위원과 협의하여 임원진을 구성키로 했다.

이날 임시총회서는 지난22일 못했던 감사보고를 李泰圻감사가 했으며 올해 종별선수권대회 개최지를 忠北으로 결정했다.

이날 임시총회서 李洪鎭대의원은 『앞으로는 재무감사 외에도 국가대표팀 전력향상 방안과 협회업무등에대한 감사도 총회에서 할것을 촉구했다.

## 대한승마협회 새會長 金政宇씨

대한승마협회는 29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金政宇부회장(40·豊韓방직사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임했다.

## 「겨울」이 없다

### —프로야구 强訓현장을 가다 ⑤

### 해태 타이거스 ㊤

## 호랑이喊聲 無等山 삼킬듯

## 잠자던 嚴平載 깨워 기름칠

光州를 지키는 無等산기슭에 호랑이들이 야생하고있다. 가파른 계단을 뛰어오르내리고 『휘!휘!』 찬바람이 일도록 배트를 휘두르며 해태·타이거스들은 새봄의 큰기지개펼날을 기다리고있다.

『호랑이를 고양이로 키울생각은 없읍니다. 제나름대로 가진 큰 무기를 갈고닦아서 힘을 모으도록해야지요』

美國에서 야구수업 1년을 마치고온 金應龍감독의 훈련 지휘는 독특하다. 선수 개개인을 구속하는 일률적인 훈련스케줄은 극히 짧은 시간에 끝난다. 대부분의 훈련은 선수자신에게 맡겨져있다. 대포는 더욱 위력큰 대포로, 속사포는 더욱 빠른 속사포로 다듬어 쓴다는 것이 金應龍감독의 팀 지휘방침이다.

『프로야구에 들어온 선수에게 지금 방망이를 짧게 쳐라, 길게 쳐라 하다는게 난센스지요. 가진 특성을 더 잘 살리도록 하는게 더 좋은 방법 아닙니까』

전쟁에는 대포도 필요하고, 소총도 필요하고 전차도 필요하다. 굳이 선수들을 획일적인 틀에 묶어둘 까닭이 없다.

金應龍감독의 주문은 선수들이 저마다 독특한 비장의 무기를 만들어 두라는 것이다. 적어도 한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르지 못하는 한 프로의 냉엄한 세계에서 살아남기란 어려운 일이다.

지난6일 시작된 光州합동훈련도 최대의 역점은 체력보강과 신무기개발에 있다. 투수들은 초침에 박자를 맞추어 계단을 뛰어 오른다. 계단 3칸을 뛰어 오르내리기를 3분간 반복, 일제히 피스톤 터지듯 다리를 굴러 약30칸의 계단위로 전력질주한다.

30여분동안 선수들을 진두지휘, 함께 계단훈련에 참여한 柳南鎬 투수코치의 몸에서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온다. 金應龍 감독은 위급한 경우에 柳南鎬코치까지 마운드에 투입할 작정이다.

따뜻하게 몸을 덥힌다음 투수들은 투구연습에 들어간다. 金勇男과 李相潤은 기존의 속구에다 컨트롤을다듬는다. 새로이보강된 金鉉宰는 왼손잡이잇점에다 낙차큰 드롭을 연마하고 있다. 전문 타자로의 뜻을 굽히지 않고있는 만능선수 金城漢도 金감독의 요청으로 금년 한해 더 마운드에 오를 준비를 갖추고 있다.

金감독은 지금 光州에내려와 한가지 큰도박을 걸고있다. 무명투수 嚴平載(21)의 발탁이다. 全南高 鐵道廳에서의 짧은선수생활후 그라운드밖에 묻혀 지내던 嚴平載는 뜻밖에 프로팀 해태·타이거스의 신병기로 큰기대를 모으고 있다.

1m80cm, 날씬한 몸매의 嚴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에 온몸을 내던지고 있다.

차가운날씨와 눈내린 그라운드를피해 빌어쓰는 眞興高 실내연습장 속에서는 金泰淵·金準桓·金一權·金宇根·金鍾模·金鍾潤등 KKK 타선의 날카로운타격음이 쉴새 없다.

티·배팅에서 시작, 마운드의 반거리, 3분의 2거리, 정식거리 순으로 하루 평균1천5백회의 배팅훈련이 계속된다. 趙昌秀타격코치의 호루루기를 신호로 배터·복스에 들어서는 호랑이 타자들의 눈매가 무섭다.

호쾌한 장타력을 자랑하는 해태타선에는 새해에 재일동포 강타자 金茂美와 金一煥·徐定煥등 이적선수들이 가세했다.

『光州생활은 처음입니다. 그래도 실업팀이나 軍팀, 옛동료들이 있어 외롭지는않습니다. 지난해의 불운을 씻자는생각에 외로울 사이도 없구요』

三星·라이온즈서 후배吳大錫에게 유격수자리를 빼앗겨 더그아웃에서 한해를보냈던 徐定煥. 호랑이로 탈을바꾼 그는 두번 다시 우울했던 전철을 밟지않기위해 이를 악물고있다.

『어느 팀이나 선수들의 수준은 비슷한 편입니다. 우리팀엔 무명선수가 많지만 내가 보기엔 모두 좋은 선수입니다. 그럼 어떤팀이 이기느냐? 열심히 땀을 흘려 준비한 팀이 이기는 거지요』

가장 다루기 어렵다는 호랑이선수들의 자율적인 훈련과 지나친 열성이 金應龍감독은 걱정스럽고도 마음든든하다. 【方錫鎬기자】

◇美칼·루이스 8m53 뛰다

美國의 세계적인육상선수 칼·루이스선수(21)가 29일새벽 (한국시간)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벌어진 제76회 밀로스 실내육상 멀리뛰기종목에서 8m53을뛰어 우승을 차지하고있는 모습。 【뉴욕28일AP電送=聯合】

## 새부회장 吳相泳씨

### 卓球협회執行部

대한탁구협회가 29일 새집행부를 구성했다.

새집행부에는 鄭相國씨가 개인사정으로 부회장직을 물러나고 吳相泳씨(和進商事대표)가 새로 기용됐다.

◇새 집행부

▲회장=崔元碩(東亞그룹회장) ▲부회장=金光喜(東亞建設전무·유임)吳相泳(和進商事대표·신임) ▲이사=金境峻 朴道天 朴聖仁 金榮植 李鍾春 金泰鉉 鄭東仁 朴徹奎(이상 유임) 金昌濟 朴鍾大 朴鍾浩 李喆雨 曺敬子 朴魯玄 王昌鍾 朴賢洙 李仁守 朴壽福 金炳昇 申炫國(이상 신임) ▲감사=尹鉉彩 朴性仁(이상 신임)

◇쿠에바스 ◇두 란

## 恐怖의 주먹 두란-쿠에바스 一戰

### 오늘LA서…쿠에바스 이기면 黃俊錫-커리 勝者와…

지난날 세계 프로복싱계를 주름잡았던 로베르토·두란(31·파나마)과 피피노·쿠에바스(25·멕시코)가 30일 낮(한국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선수생명을 걸고 12회전 경기를 펼친다.

이경기는 타이틀전이 아니지만 두선수가 과거 화려한 세계 챔피언의 관록을 갖고 있기때문에 승부결과에 큰관심이 쏠리고있다.

이대전을 앞두고 두란은 『쿠에바스에 패하면 은퇴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승리를 거둘경우 WBA 주니어미들급 타이틀에 도전할뜻을 비쳤다. 쿠에바스도 『패배를 생각해본적이 없다』며 자신만만한 태도.

두선수는 각각 4만달러의 개런티로 링에 오르는데, 흥행사 (보브·애럼)의 이야기로는 쿠에바스가 이길경우 오는2월14일 열리는 WBA 웰터급타이틀결정전(黃俊錫 對부르스·커리) 승자에 도전하게 될것이라는것.

72년 세계라이트급챔피언이었던 두란은 체중초과로 웰터급에 진출, 80년6월 레너드를 판정으로 물리치고 WBC웰터급王座에 올랐다가 같은해 11월 레너드와의 재대결서 위경련을 이유로 8회에 경기를 포기, 석연치않은 여운을 남겼었다.

은퇴소문이 줄기차게 나도는 가운데 두란은 82년1월 WBC슈퍼 웰터급챔피언 윌프레도·베니테즈(푸에르토리코)에 도전하여 판정패했으며 지난해11월 마이애미서 지미·배튼과 10회전을 벌인후 현재까지 경기를 갖지않고있다.

한편 가공의 레프트 훅을 자랑하는 쿠에바스는 76년 7월 앙헬·에스파다로부터 WBA 웰터급 타이틀을 차지하여 80년8월 토머스·헌즈에게 2회KO패 당할때까지 11차례에 걸쳐 타이틀을 방어했다. 쿠에바스는 로저·스태포드와의 대전후 『왼쪽 어깨를 다쳤다』고 발표, 14개월동안 링에 오르지않았다.

쿠에바스의 전적은 29승(26KO)7패, 두란은 75승(55KO) 4패를 기록하고있다.



# 교 회 안 내

가나다순

| 교회명 | 담임목사 | 예배시간 | 주소 | 전화 |
|---|---|---|---|---|
| ●감리교회 (Methodist Church) | | | | |
| 웨슬레감리 | | | | |
| 토론토한인감리 | 박춘하 | 주일영어 1:00 주일예배 2:00 | 75 Canterbury Place | 498-7960 |
| ●독립교회 (Independent Church) | | | | |
| 가나안 | 이정준 | 주일오후 1:30 |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e. W.) | 742-7010 |
| 대한 | 조남유 | 주일오후 2:00 | 3819 Bloor St. W. | 621-6340 |
| 메시아한인 | 조창환 | 주일오후 1:30 영어예배 12:30 새벽기도 6:00 토·수요예배 오후8시 | 1580 McCowan Rd. | 298-1876 |
| 벧엘 | 최상봉 |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00 | 395 Old Yonge St. | 496-2967 221-1382 |
| 성령 | | | | |
| 스카보로 | | | | |
| 토론토한인 | | | | |
| 런던한인 | 신용규 |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1:00 금요기도 오후 1:00 | 530 Topping Lane London | 686-0224 473-5257 |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한복음 15:7)

| 교회명 | 담임목사 | 예배시간 | 주소 | 전화 |
|---|---|---|---|---|
| ●순복음교회 (Full Gospel Church) | | | | |
| 순복음토론토 | | | | |
| 캐나다순복음 | | | | |
| 순복음몬트리얼 | | | | |
| ●연합교회 (United Church) | | | | |
| 미시사가연합 | | | | |
| 중앙한인연합 | 김택규 | 주일오후 12:30 | 353 Sherbourne St. | 922-3863 922-[illegible] |
| 임마누엘 | | 주일오후 2:00 | 63 Dunblaine | 488-4141 |
| 토론토한인연합 | | | | |
| 한인연합 | 반병섭 | 주일예배 오후 1:30 | 69 William St. Weston | 243-9543 743-8082(R) |
| 해밀톤연합 | 김나중 |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3:00 | 1570 Main W. Hamilton | 626-4329 |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라디아서 5:1)

| 교회명 | 담임목사 | 예배시간 | 주소 | 전화 |
|---|---|---|---|---|
| ●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 | | | |
| 개혁장로 | | | | |
| 갈보리장로 | | | | |
| 동부장로 | | | | |
| 딕시장로 | 차주성 | 주일새벽 6:30 주일 낮 12:00 주일오후 2:00 | 3065 Cawthra Rd. | 279-4356 279-6388 |
| 반석 | | | | |
| 빌라델비아 | | | | |
| 새한장로 | | | | |
| 선교 | 장세철 | 주일오후 1:00 | 1 Greenland Rd. | 444-8002 |

| 교회명 | 담임목사 | 예배시간 | 주소 | 전화 |
|---|---|---|---|---|
| 성도 | | | | |
| 성산 | | | | |
| 소망 | | | | |
| 시민 | 조성관 | 주일오후 2:00, 4:30 금요기도 밤 9:00 | 662 Pape Ave. | 266-4918 |
| 영락 | 김재광 |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 10:30 | 126 O'Connor Dr. |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얼) |
| 오순절장로 | | | | |
| 은성장로 | 장은덕 | 주일오후 2:00 | 8 Amroth Ave. (at Danforth & Woodbine) | 691-9691 266-8820(R) |
| 제일장로 | | | | |
| 충현 | | | | |
| 토론토한인장로 | 박희민 | 주일오전 11:00 수요오후 7:30 TV예배 8:30-9:00AM CH. 79 | 1183 Davenport Rd. | 535-6864 532-2121 |
| 한인중앙장로 | 정관일 |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 502 Bathurst St. | 245-4980 (전화설교) |
| 런던제일장로 | | 주일오전 11:30 주일오후 1:30 금요기도 오후 8:00 | 135 Briscoe St. E. | (519)439-6331 |
| 런던한인장로 | | | | |
| 몬트리얼장로 | | | | |
| 에드몬톤장로 | | | | |
| 키치너·워터루한인 | 정동석 |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 388 Ottawa St. S. Kitchener | (519)579-0954 |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찌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찌어다 〈시편 100 : 1~2〉

| 교회명 | 담임목사 | 예배시간 | 주소 | 전화 |
|---|---|---|---|---|
| ●침례교회 (Baptist Church) | | | | |
| 에덴침례 | 박문구 |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성경공부 | 1272 Weston Rd. | 242-4964 665-2866 |
| 한인침례 | | | | |
| ●펜티코스탈교회 (Pentecostal Assemblies) | | | | |
| 새예루살렘 | 김승환 | 주일오후 2:00 수요새벽 5:30 중고등영어 오후 1:00 금요저녁 7:30 | 5 Grenoble Dr. Don Mills | 429-1430 429-2685 |
| 한인연합펜티코스탈 | 심상대 | 주일오후 1:00 -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 대예배 | 300 Queen's Dr. | 223-1914 |
| ●기타 | | | | |
| 베다니성결 | | | | |
| 제7일안식일 | 박형종 |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 255 Finch Ave. W. | 630-4284 |
| 토론토한인천주 | 최규식 |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 439 Dundas St. E. | 863-0415 |
| 한인성공회 | | | | |
| 대한수도원 | | | | |
| 오순절기도원 | | | | |
| 토론토기도원 | | | | |
| 협신기도원 | | | | |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일이 없느니라』(마가복음 9:23) 『네 믿은대로 될찌어다』(마태복음 8:13)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쎌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림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금: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Enco Mechanical 냉동기·히팅(전기·개스) 수리·설비.
Lic. Mechanic. Engineering Technician
전화: 769-5956 김명근.

RASCO 냉동 -★에어콘, 히팅, 워킹쿨러, 후리저,
Washers, Dryers, Stoves등등 시설·판매수리.
전화: 439-0047 Mr. 최

##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921-7486(R) 유문원

##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 이삿짐센타

이사하실 분은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전화 : 533-9233 Mr. 유

##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4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 번 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자동차 수리 (파타임)
전기 일체에 관한 일
전화 : 291-4547 Mr. 윤

##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거입니다

##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Stewarts 카페엣 Land(70%까지 세일중)
무료설치, 스폰지 무료, 무료배달.
1200 Kennedy Rd. Scarboro(Tel. 757-2811)

##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합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 - 스카보로
◉1974년도 육대학 경제과 전공 ◉1976년도 욕대학 경영관리학 회계학전공 ◉현 캐나다최대의 컴퓨터회사의 어카운터 메니져 ◉소규모사업체 회계사무 6년경험
44 Gil Roy Dr. Scar. Ont. M1P 1J9
전화 : 752-9332(R) (오후 5시30분이후)

광고문의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 구 인

햄버거숍에서 파트타임 오전중에 일하실분.
오전 11시~오후 3시
전화 : 447-1460 (오후 3시 이후)

---

저녁때 일할 파트타임 Hairstylist 구함.
Knob Hill Farms, 222 Lansdowne Ave.
전화 : 531-1011 Manager

---

도넛숍 카운터 헬퍼 구함.
(1)밤12시~아침8시 (2)주말 아침8시~오후4시
전화: (B)690-3920, (R)491-8734 Mr. 김

---

적은 「레스토랑」 맡아서 하실분. ◉약간의 경험이 있으시면 더욱 좋음.(부부가 운영 가능함) ◉보증금: $1,000
695 The Queensway 전화: 251-1423(오후7시이후 요망)

---

영어할수 있는 풀타임 여자 캐쉬어 구함.
주5일, 교통 편한곳임, 다운타운 지역
전화: 699-3953

---

한국요리사, 입주하셔서 가정돌보실 분.
내방 요망합니다. 538 St.Clair Ave. W.
전화 : 654-6609 Mr. 유

---

밴운전 할수있고 사다다리 올라갈수 있는 미혼남자.
그림 그릴수 있으면 좋음. 1일 8시간 근무. 127 Manville Rd.
전화 : B)755-9087, R)755-5304 Mr. Lee Scarboro, Unit 9 rear.

---

입주할 분 구함.
전화 : 266-6355

---

캐쉬어 급히 구함.
영주권 가진 자.
전화: 691-6768 Mr. 김

---

Tavern 에서 일하실 경험 있는
젊은 웨이트레스 구함.
전화: 491-4058

---

풀타임, 파트타임 도넛숍에서
밤일 하실분 구함.
전화: 977-0303

---

**World Book—Childcraft of Canada**
A division of SFZ International, Ltd.

자녀들의 필수교과서 "WORLD BOOK" 백과사전
총 22권 · Special 가격으로 판매.
문의처 : 533-2364 김
767-1702 (오후 6시이후)

##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

남자친구를 찾고 있읍니까?
24살의 남자가 18세~30세 여성을 찾고 있읍니다.
전화: 532-3465 Marshall

## 한국기관·해외지사

| | |
|---|---|
| 총영사관 | 598-4608 |
| 무역진흥공사 | 977-8784 |
| 외환은행 | 364-2890 |
| 외환은행 Bloor지점 | 533-8593 |
| 한일은행 | 865-0456 |
| 조흥은행 | 363-3448 |
| KAL | 862-8250 |
| 금호실업 | 224-2491 |

## 교 민 단 체

| | |
|---|---|
| 한인회 | 755-9288 |
| 노년회 | 755-8079 |
| 실업인협회 | 533-7923 |
| Y.M.C.A. | 536-1166 |
| 코리아타운번영회 | 532-2727 |
| 동우회 | 261-2917 |
| 호남향우회 | 651-8835 |
| 캐나다체육회 | 248-8846 |
| 한인신용조합 | 533-9387 |
| 천주교신용조합 | 363-0097 |
| 한인태권도협회 | 630-3095 |
| 상공인협회 | 444-3716 |
|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 533-2361 |
| '88 올림픽후원회 | 622-3674 |
| 승공문화협회 | 444-3658 |
|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 593-8943 |

##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221-2556 Mrs. 리(Finch & Yonge 근처)

---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

광고문의 533-2361

## 매 매

타사업 운영으로 인해 아동복 전문점 급매.
좋은 조건으로 양도하겠음. 꼭 흥미있는 분만 연락요망.
전화 : 530-0023

---

Hardware 비지네스 $25,000
좋은위치, 넓은 파킹장, 렌드및 장비양호
전화: 883-1721 Harry Pridham

---

버라이어티 스토아(Tuck Shop) 매매
아스킹: $20,000+스탁 주매상: $2,500~$3,000
전화: 1-561~1911 Mr. 정(저녁7시 이후)

---

◉연평균 주매상 약4천불의 버라이어티 스토아
렌트: $450, 4년 +5년 이층아파트 입주 가능
권리금: 3만5천.(전화 225-1204)

---

Soft Ice Cream 머신 일절 매매.
★산지 2년 됐음.
전화: 961-3517

---

매매 (Tuck Shop)
100% Cash Deal
전화 : 242-2630 Mr. Park(밤 10시30분 이후)

---

가게 매매 또는 매니저 - 해밀톤
주매상: $5,000, 렌트: $500, 리스: 5년 +5년
전화 : 498-5242(토론토)

---

◉쇼핑 Mall Smoke Shop
좋은 리스, 아스킹: $55,000
◉새로 시작한 Donut Shop
밝은 전망, 아스킹: $60,000
◉버라이어티 스토아 — 주매상: $5,500
★535-0028 Mr. 김

---

COIN LAUNDRY

28 Washers, 2 Heavy Duty Washers, 11 Dryers, 1 Pop Vending Machine, 1 Soap Machine.
Lease august 31, 1988, extention possible.
Yearly net income $24,000(Minimum)
Asking price $50,000(one price)
Address: 3412 Dundas St. W. Tor.(in Plaza)
Telephone: 762-1264

---

(1)Drive in Restaurant 매매(*4년된 독립빌딩과 비즈네스)
◉$75,000 down, $100,000 주인이 모게지 잡음.
◉좌석44, 주류허가, 45대이상의 주차장, ◉대지1에이커는 16년간 리스가 있고, 건물확장·신축·비즈네스 전환도 가능함. (2)버라이어티 년평균 주매상: $5,500 렌트: $800
Royal Trust 곽 석 용(전화: 752-3111)

---

다이아몬드·반지 4부 VS. H. Color
Appraised $1,900 Sale가격: $950 ◉Band(가락지)와 한쌍
전화: 767-1702 박(오후6시 이후)

---

Health & Bulk Food 가게매매(Dry Fruit, Nuts, Tea, Coffee, Candy, Chocolet) ★ 짧은시간·좋은이익.
전화: 783-6464

---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3 Pcs. Wall Unit. $199
2)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거울달린 화장대 $79
4)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5 pcs. Kitchen set(식탁 + 4개의 의자) $89
6)쇼파 4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

Tuck Shop 급매, 해밀턴 지역, ◉300세대 성인아파트, 인근 타운하우스, ◉드라이크리닝···사진취급 ◉안전사업, 입주가능, 아스킹: $19,000+스탁 1-561-1911 Mrs. 정(저녁6시

---

◉아이스크림 커피숍: 바쁜 Indoor Mall, 일요일 닫음, 리스 9년, 권리금: 7만 9천 ◉가게와 건물: ~~1)토론토 서쪽60마일, 주매상: 6천 수타켓, 2Bed Rm, 아파트 3개, 가격: 19만불.~~ 2)주매상: 5천5백, 짧은 영업시간, 가격: 19만불 ◉코리아타운 투자용건물: 40만불 다운페이, 가격: 89만9천.
〈황용현부동산〉 Call 임윤식(Tony) 449-8644 (B), 636-7950(R)

---

◉몬트리얼 영어지역에 위치한 수퍼마켓 매매
좋은 리스 드림, 건물 매매도 가능함.
연매상: 80만불, 현주매상: $14,000
윗층에 아파트 4½ Room 있음.
◉가게를 맡아서 운영하실 메니저 구함.
전화 : 1-514-481-3291 Mrs. 김

##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

가게 렌트 (1700 Sq.feet)-런던지역(Dochester)
Walk-in 쿨러가 있으며 버라이어티나 take out food으로 적당.
전화 : 624-5817

---

가게 렌트.(약500sq. ft.) ◉렌트: 월650
꽃가게 그로서리 적합, 다운타운.신개발지역.
전화: 766-4504, 493-9599, 365-1489 다니엘

---

2 Bed Rm. 아파트 써브렛.(3월1일부터 입주 가능)
Queen & Lansdowne, 써브웨이 가까움.
렌트: 월 $402, 전화: 537-7624 Mr. 이(오후 7시이후)

---

아파트 렌트. ◉1Bed Rm. 독신, 월 $190
◉2Bed Rm. 부부, 월 $290
전화: 766-4504, 493-9599, 365-1489 다니엘

##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1440 Bathurst St. ( 21 Vaughan Rd. )
전화 : 657-1785 (김 만구)

##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 ◉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

Bloor & Kennedy 꽃집
결혼, 개업용 화환및 Plant
2194 Bloor St. W. 전화 : 766-0175

##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767-1702(6시이후)(Mrs. 김)

##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138-0628(R) Mrs. Oh

---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

광고문의 533-2361

##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전화 : 868-0922

---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638-6919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입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땐휘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W.
535·9541 MR.김